



본 자료집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공간 빼빼보관소에서 진행된 총 4개 사업 '빼빼은 000'(의정부 문화예술 마중물 프로젝트), '빼빼보관소 - 삶, 예술을 보관하다'(의정부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친애하는 나의 오늘'(문화도시 100만원 실험실), '프로젝트 생생'(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재생 거점 공간 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프로젝트들의 여정이 담겨있습니다. 각각의 예술프로젝트들은 빼빼이라는 땅과 그 안에 삶을 일궈온 주민들의 삶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으로 삶과 예술이 만났을 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공공성들을 실험해보고자 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술활동을 점진적으로 실천하여 공공의 공간인 빼빼보관소를 거점으로 마을 내 새로운 공동체의 기억들을 만들어보고자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베셀보관소 : 삶·예술을 보관하다**

## 목차

뽕뽕보관소 : 삶·예술을 보관하다	11
--------------------	----

### 굿바이 힐사이드, 웰컴 뽕뽕보관소

경계를 허무는 공간, 공동체의 새로운 기억을 보관하는 공간 만들기	14
공간 리뷰	23

### 뽕뽕은 共共共

여는 글 : ‘뽕뽕은 공공공’	27
개소식 : 시민참여거리극_‘으르렁’ 뽕뽕 - 사자가 돌아온다	28
개소식 : 축원문 퍼포먼스	34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7
비스듬히 모여 앉는 자리들	38
가공공간	39
뽕뽕	40
Thirsty Thursday, Tequilla Tuesday	41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	42

뽕뽕은 공공공 작가 워크숍 : 느슨한 연대를 위한 몸짓기	44
주민참여 워크숍 : 반짝, 뽕뽕, 사랑 모빌워크숍	48
주민참여 워크숍 : 뽕뽕 - 사자가 돌아온다 : 가면만들기 워크숍	49
주민참여 워크숍 : 나에게 필요한 향기 : 손소독제 만들기	49

### 친애하는 나의 오늘

여는 글: ‘친애하는 나의 오늘’	52
제일 먼저 복순이를 찍었다	56
왜 점점더보고싶은지이유를알수없다	60
더 찍으려면 지워야 해요	64
내년에도 이 곳에서 살 수 있을까?	66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70
비가 오는 날 하늘	72

### 뽕뽕 재주대장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공연

땅재주 하늘재주 놀이대장 모여라!	76
--------------------	----

### 뽕뽕보관소 공간포럼

예술로 삶을 공공 [공감,공진]하기	79
---------------------	----

### 프로젝트 생생

여는 글 : ‘프로젝트 생생’	83
맺음 상회	84
영호름	88
목요일의 춤	92
무상반죽	96

우리동네 뜨개질방 : 등글게 더 등글게	100
프로젝트 리뷰	104

### 주민 에필로그

어디 사세요? 예술마을 뽕뽕에 살아요	108
뽕뽕 보관소와의 만남	109

### 프로젝트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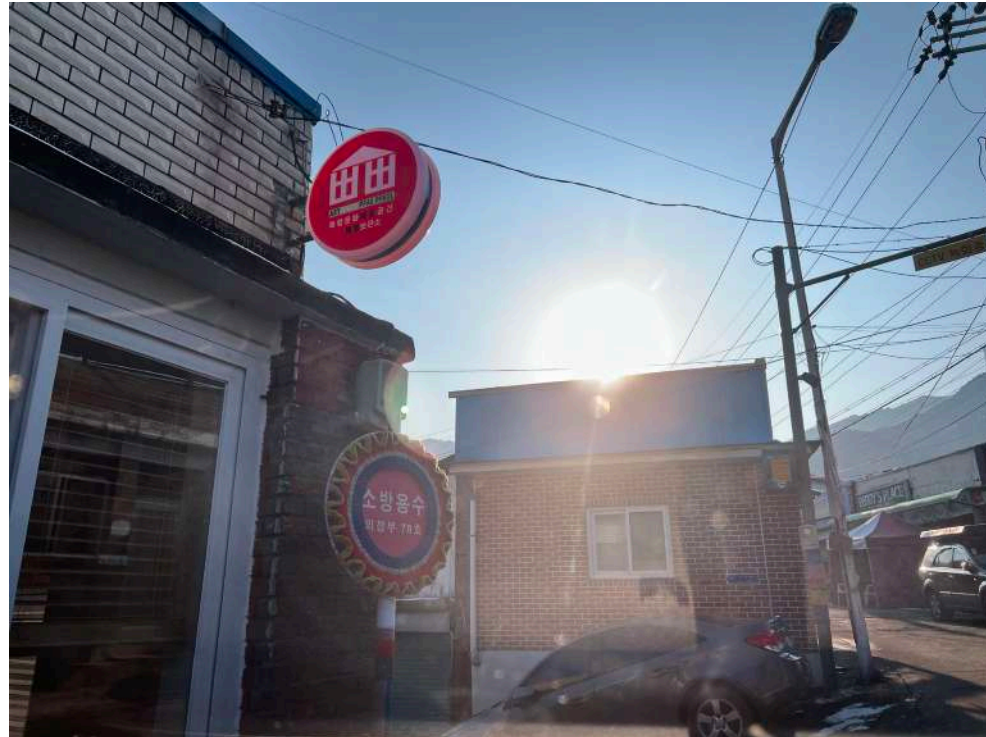
	112
--	-----

### 뽕뽕보관소와 함께한 사람들

	133
--	-----

## ▣▣보관소 : 삶 · 예술을 보관하다

김현주, 조광희



<▣▣보관소 - 삶 · 예술을 보관하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기지촌 마을 ▣▣를 거점으로 진행된 예술프로젝트이다. 2019년도 이후 세 번째 거점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미군전용바로 운영되어온 ‘힐사이드’를 만나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기존의 공간 - 힐사이드에 남겨진 흔적과 유형무형의 기억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기록할 것인지, 또 지역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이 되기 위한 공간 수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본격화 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마을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예술공간 ‘▣▣보관소’를 만들어 내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의 역사와 삶을 기반으로 한 예술창작과 공동체 예술 활동의 한 해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담아내 보고자 했다.

<▣▣보관소 - 삶 · 예술을 보관하다>에는 지역아카이브예술 ‘Thirsty Thursday, Tequilla Tuesday’, 커뮤니티아트 ‘▣▣는 共共共’, ‘프로젝트 生生’, 예술워크숍 ‘친애하는 나의 오늘’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공동체예술기반의 활동들로 지역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새로이 연결될 수 장소 - ▣▣보관소를 거점으로 공유 및 확산될 수 있었다.

공동체의 공간이 부재한 마을에 ▣▣보관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현대의 공간으로 이웃 간에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고 주민의 일상적 삶에서 동행할 수 있는 직접적 예술 활동의 계기들을 지속화 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을 통한 ‘나-나’, ‘나-우리’ 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공동체의 새로운 기억을 보관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실천해보고자 했다. 2019년 <▣▣-주름 프로젝트>이후 ▣▣보관소를 거점으로 지속된 일련의 프로젝트들은 **변함없이 예술과 삶이 만나는 것, 예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에 미세한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 보는 것, 공생과 순환의 가치를 예술을 통해 삶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조금씩 좀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 70년 넘게 허물어지지 않는 미군부대 장벽과 함께 우리 삶 속의 ‘경계’를 질문하고 담론화 하는 것이었다.**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작은 섬과 같은 도시-언저리의 땅 ▣▣는 여전히 동시대로부터 배제된 역사의 공간이면서도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리’이다. 연일 끊임없이 지속되는 미세먼지와 코로나팬데믹, 기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살고 있는 지금 예술은 다양한 목소리로 삶이 있는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자본주의 삶에서 쫓겨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소환해 내는 움직임이자,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해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 지역이 품은 고유한 삶의 가치들과 아름다움을 따뜻한 발걸음으로 생생하게 일깨워준 예술가들의 노고와 낯선 예술가들의 발걸음을 환대해주고 동행해주신 마을 주민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굿바이 힐사이드, 웰컴 빼빼로 보관소’

## 굿바이 힐사이드, 웰컴 뽀뽀보관소 : 경계를 허무는 공간, 공동체의 새로운 기억을 보관하는 공간 만들기

### 프로젝트 기간

1차 리모델링 2021.06. - 07.

2차 리모델링 2021.09. - 10.

### 함께한 사람들

미술 작가 | 장영원, 조광희, 최정원, 정명국, 김현주

마을 주민 | 왕희관, 황용섭

간판 제작 | 박경귀



1차 리모델링 과정\_ 최정원님의 모습

뽀뽀마을은 1952년 미2사단 포병여단 본부인 캠프 스탠리가 들어서면서 196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된 정착촌 마을이다. 예술거점공간이 된 힐사이드 건물은 정확히 언제 건축되었는지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과거 미군에 의해 촬영된 사진과 마을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 1970년대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힐사이드 건물의 옛 주인이자 고인이 되신 백돌문 할머니는 당시 마을에서 연탄을 판 돈을 모아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전하며 건물이 지어졌을 초기 전당포가 들어섰다가 양복점을 거쳐 90년대 이후 힐사이드가 들어서게 되면서 꽤 오랜 시간 성업한 것으로 전한다.

주민들에게 '스톨(Store)로 호명되던 힐사이드를 처음

방문했던 당시 공간에는 이미 바(Bar)안의 집기들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고 홀에서 분리된 세 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는 미군들이 다트 놀이하던 흔적과 낙서들이 가득했다. 공간 구석구석에 붙박이처럼 남아있던 부적들과 메모, 미군들의 낙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머물렀던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공간의 대기를 상상했고 네 벽을 가득 채운 욕설들 사이에서 힐사이드가 2017년까지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시간 문이 잠겨 있던 힐사이드 내부에는 여전히 폐쇄적인 군대 생활의 고립감으로부터 억눌린 무의식과 일탈감이 거친 낙서를 통해 분출되는 듯했고 흠뻑러진 듯 남아있는 누군가의 기억물들을 카메라 안에 담는 과정은 보이는 낙서 너머에 존재



힐사이드 외부\_ 2020.04.08.



힐사이드 내부\_ 2020.04.08.



2008년도 미군에 의해 촬영된 힐사이드 모습



2000년 이후 미군전용바로 운영되었던 힐사이드 내부 공간 풍경

하는 모르는 이들의 무의식들을 더듬어 보는 일이었다. 주민들에게 마을은 뽀뽀였고, 군인들에게는 Stanley Ville이라 불리었던 마을 어딘가에는 여전히 주민과 군인이 교집합 되어 있는 기억들이 남아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들이 연결되어 남아 있는 공간들은 무엇 하나로 명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며, '마을 주민', '군인', '기치촌 여성', '이주노동자' 또한 그랬다. 이런 관점에서 뽀뽀 보관소에 '보관하다'라는 동사적 움직임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이곳에서 꼭 해야만 하는 예술이란 무엇인지 질문하며 중심을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공간 리모델링은 기존 공간의 기억물들을 보관하면서도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으며 급급적 공간을 수선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적은 예산을 들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수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초기 기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최소한 무더위와 한파를 버텨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과 천장 보완, 출입문 교체 등 수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다행히 하반기 지원된

기획지원사업을 통해 꼭 보완해야 할 창문과 좁은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윈도우 갤러리와 선반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에피소드들이 생겨났다. 리모델링하는 모든 과정이 지역과 뽀뽀보관소가 연결되면서 새로운 관계의 문이 싹트는 과정으로서의 '작업'이었는데 떠오르는 몇 가지 일 중 쓰레기와 관계한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본격적인 수선을 시작하면서 기존 벽면에 붙어있던 나무들, 고장 난 출입문 등을 떼어내고 철거하는 작업이 있었다. 목재와 타일 등 건축물 폐기물들을 한꺼번에 모아 버릴 요량으로 며칠 간 건물 앞에 쌓아 놓은 적이 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폐기물을 모아 놓은 자리에 누군가 신고하고 버려야 하는 옷장과 서랍장 등 각종 쓰레기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뽀뽀에는 비어있는 상점과 집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나 좁은 공터 같은 곳에는 어김없이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걸 목격하게 된다. 신고하고 버려야 할 각종 생활 쓰레기가 방치되면 그 주변으로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음식쓰레기가 뒤범벅된 생활 쓰레기 냄새를 맡은 길고양이들이

1970년대 빼벌 풍경



봉투를 찢어 놓는다. 그리고 나면 온갖 잡스러운 쓰레기들이 길로 나뒹굴게 되는 풍경이 반복된다.

대다수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뿐더러 분리수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불편한 일이지만 정기적인 주민 모임이 부재하고 담합이 어려워 누군가 나서서 문제 해결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보니 꼭 개선해야 할 일이 방치되고 있다.

건물 앞에 버려진 커다란 옷장과 서랍장을 보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투덜대듯 동네 주민분들께 털어 놓았다. 여기 건물 앞에 CCTV가 바로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버렸는지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종이 위에 'CCTV가 다 보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경고 문구를 적어 양쪽 창문에 붙여 놓고 주민분들이 쓰레기에 민감하다, 아무 곳에

나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만나는 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로 일단락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일차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었을 쯤 출입문 옆에 먹다 버린 자두와 자두씨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손으로 하나씩 버려진 씨앗을 줍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속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 분들을 원망하던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다름 아닌 영화촬영을 위해 마을에 온 분들임을 알게 되었다. 쓰레기에 예민해져 있던 나도 모르게 '동네에 작업하러 오신 분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버리시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외지에서 온 예술가들이 나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보다는 동네에 앞서 작업하러 온 예술가가 텃세 부리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빼벌 풍경



미군바로 운영되었던 힐사이드 건물이 1990년대에는 양복집으로 운영되었음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쓰레기는 여전히 내게 화두가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소소한 듯 하지만 불편한 일들이 지역에서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이러한 일상을 어떻게 예술을 통해 얘기해야 할까 궁리하게 된다.

공간을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은 아카이브의 과정이기도 했다. 문짝을 드러내거나 공간 벽면에 붙어있던 오래된 나무들을 해체하면서 한 꺼풀씩 공간의 기억들을 추적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씩 건져 올려졌으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퍼즐은 온전히 맞출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6월, 10월 두 차례에 나누어 리모델링된 빼벌보관소는 예술공간이라는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시시때때로 지역민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점진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

는 곳이다. 경계로 둘러싸인 기지촌 마을에 경계를 허물고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기억을 보관하고자 하는 공간리모델링의 과정이 일단락되었고 이제 공간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술을 통한 새로운 기억 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 다시 중심잡기를 시작하며 이 장을 빌어 지난 여름과 가을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함께 작업해주신 마을 주민분들과 미술작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2.02. 김현주



창문\_2020.04.12.



힐사이드 내부공간에서 발견된 다편\_2021.05.01.



부적\_Hill Side 출입문 위에 부착된 부적\_2021.05.13.



다트 방 출입문을 떼어내면서 나온 폴라로이드 사진들\_2021.05.28.



힐사이드 공간에 붙어있던 미군들의 낙서가 적힌 지폐\_2021.05.01.



다트방 출입문 벽면을 드러내면서 발견된 유리문\_2021.05.28



돈과 북어\_Hill Side 출입문 천장에 매달려 있던 북어\_2021.06.24.



US Holiday\_2021.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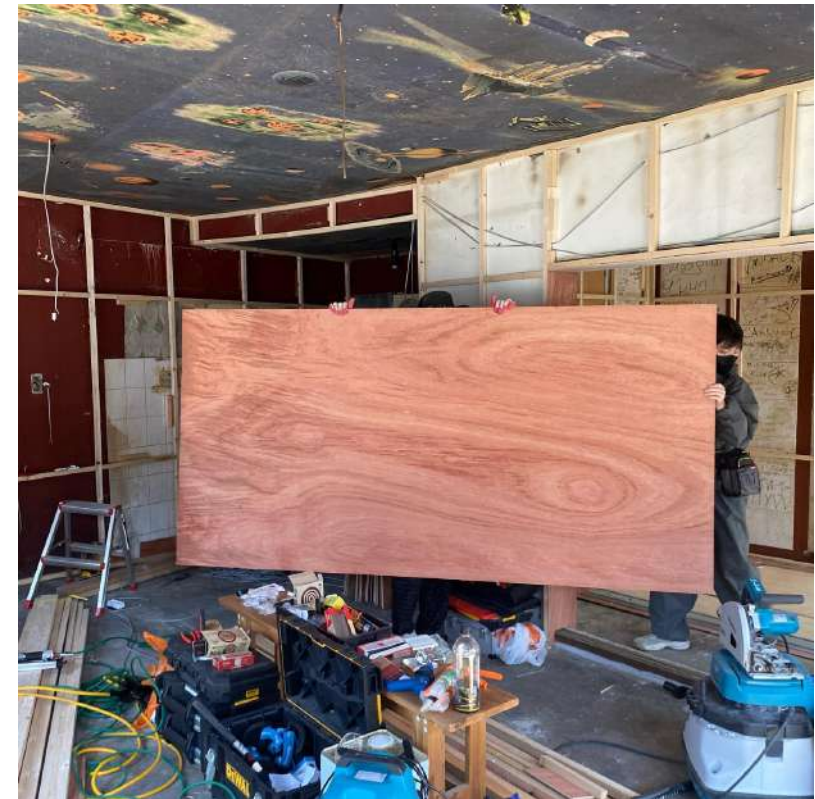
'Restroom watch your head'\_ 화장실 내부공간과 출입문\_2021년 04월25일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메뉴판\_2021.05.13



낙서방\_미군들의 낙서와 다투놀이 흔적이 남아 있음 \_ 2021.05.21



1차 리모델링 과정\_장영원님과 최정원님이 합판을 나르는 모습 \_ 2021.06. 의정부문화재단 사진제공



화장실 출입문을 떼어내고 계시는 황용섭님 모습 \_ 2021.05.28.



1차 리모델링 과정\_ 장영원님과 최정원님의 외부 데크 제작 \_ 2021.06.06.



화장실 공사를 하고 계신 양희관님과 완성된 화장실 모습 \_ 2021.05.28.





1차리모델링이 마무리된 내부공간\_2021.07.01.



2차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외부전경\_2021.10.29.

## 공간 리뷰

장영원

삐뽤 보관소가 위치한 ‘삐뽤 마을’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 냉전 역사의 지층들이 촘촘히 쌓여 있는 곳이다. 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한 공간은 지역 특성을 아카이빙하고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모아보려는 시도로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공간은 오랜 시간과의 싸움에 비례해 바닥과 벽면이 제 멋대로 기울어져 있고, 창문 프레임 등은 모두 들뜨거나 깨져 있었다. 간혹 비라도 흠뻑 내리는 날에는 손금처럼 갈라진 바닥에서 습한 기운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의 벽면과 바닥을 뜯어냈다. 기존 벽에 임시로 덧댄 나무프레임과 전기 시설들이 눈에 들어온다. 최소의 비용으로 기능만은 살리기 위해 구멍 난 벽면을 천으로 틀어막기도 하였고, 주저앉은 천장 틈을 메꾸기 위해 실리콘을 어설피게 덧 바른 흔적들이 드러났다. 이를 보며 잘 꾸며진 매끈한 공간을 대할 때와 사뭇 다른 질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벽면 뒤로 빨려 들어간 옛 사진들을 발견하며, 이곳이 최근까지 ‘마을 술집’의 기능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벽면부터 천장까지 외설적 단어와 내가 여기 왔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낙서들은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한눈에 봐도 이곳이 가진 장소 특성을 대변해주었다.

철거가 완료된 뒤 자재를 운반하는데도 꽤 애를 먹었다. 이 공간의 행정 주소를 알려줬음에도 운송 기사 분들은 하나같이 엉뚱한 장소에 도착하여 전화를 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을 기준 삼아 구두로 설명하여 자재를 받았는데, 미군기지 근처 동네, 기지촌 마을, 흑석과 거문돌 계곡의 길목처럼 이야기 되는 곳. 수많은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는 이곳은 의정부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발견 되어야 할 장소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오후 6시에 점등되는 간판을 보고계신 김유리님, 김미정님의 모습\_2021.12.05.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어떤 공사를 하느냐?”, “누가 들어오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곤 했는데, 경제 상권이 무너진 이곳에 새로운 공간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어내었다. 어쩌면 삐뽤 보관소가 예술을 도구 삼아 주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고자 하였다면,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반 이상 그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

공사를 서둘러 끝내려 했는데도 3주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개관식이 코앞이기도 하였고 장마가 시작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까 낮 밤으로 공사를 진행 하였다. 못 하나 박으려하면 콘크리트가 깨져버리거나 페인트를 바르더라도 찌든 곰팡이 때문에 얼룩이 채 지워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래도 주민 분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찌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를 끝낼 즈음 매끈하게 변화된 공간을 보며 이곳이 마을의 예술 허브로서의 기능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게 될까 내심 기대를 갖게 되었다. 삐뽤 마을은 최근 도시 개발 문제와 마을 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 예술을 통해 호흡의 틈을 트어 준다면 그 이상의 의미가 더 있을까. 앞으로 삐뽤 보관소가 마을 예술 공간을 표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냉전의 시기를 버텨온 지역 특색을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드러내 주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배별은  
공공생  
공공감  
공공진



# 배별은 공공진

프로젝트 기간  
2021.05.01.-2021.07.17.

기획  
김현주Dalo

아티스트  
권석린  
김이박  
김현주  
오로민경  
장영원  
전병철  
조광희

## ▲ '빼빼'는 공공공'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빼빼마을은 1952년 미2사단 포병여단 본부인 캠프 스탠리가 들어서면서 196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된 정착촌 마을이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던 주민들은 미군감축과 함께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현재는 주민 고령화, 노후된 주택, 공동체 붕괴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빼빼는 마치 의정부 도시 안에서도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작은 섬처럼 재개발로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인근 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라는 동시대로부터 배제된 역사의 공간이면서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상흔의 공간이기도 하다.

2019년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연을 맺게 된 이후, 본인은 마을 주민들의 귀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아카이브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는 예술작업들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동네주민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열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활동과 워크숍을 진행하여 예술을 통한 공동체의 새로운 연대 맺기와 예술 향유, 그 자체가 지속될 수 있길 고민했다. 그러나 빼빼는 지난 2020년 찾아온 코로나와 50일간의 긴 장마와 같은 환경위기에 어느 곳 보다 취약한 곳임을 지켜볼 수 있었으며, 현재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풀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장소에서 예술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모습을 예술을 통해 새로이 발견하고 관계맺음을 시도하고자 '공생共生', '공감共感', '공진共振'의 의미를 담은 예술프로젝트 『빼빼는 공공공共共共』을 기획하였다.

『빼빼는 공공공共共共』은 빼빼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진 7명의 예술가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느슨한 연대를 이루어 예술적 공생의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모색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 작품들의 여정은 일방적으로 지역을 해석하거나 대상화하는 방식이 아닌 일종의 지역과 '대화를 나누는 여정'이라 말하고 싶으며, 이러한 여정들은 지역문화예술커뮤니티공간 빼빼보관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 워크숍, 전시, 퍼포먼스, 공연을 통해 공유된다.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대화 나눴은 그간의 여정들이 지역이 이미 품고 있었던 아름다움과 가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이러한 시도가 삶의 변화, 지역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꿈꿔본다.

2021.06.

개소식 '빼빼물관소의 문을 열다'  
시민 참여 거리극 '으르렁' 빼빼 - 사자가 돌아온다

함께한 사람들

연출 | 권석린    음악 | 더튼\_이성순, 고현경  
미술 | 정대원    사진 | 조광희  
진행 | 임석현    영상 | 임창재



집나간 사자가 다시 돌아왔다. 1960년 XX월 00일. 동네에 미군부대가 들어오고 난 얼마 후, 사자는 시끄러운 영어 소리와 술병 깨지는 소리가 싫어 집을 나갔다. 돈 버느라 바빠 아무도 찾지 않던 사자. 사는데 바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자는 조용해진 동네에 활기를 되찾아주러 다시 찾아온다. 우리는 전언을 받았다.

“2021년 7월 10일 오후 4시 경. 내가 다시 간다. 붉은 팔과 흰 서리로 나를 맞이하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자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말 그 사자가 맞을까?  
사자는 우리에게 정녕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대들에게 고하노니, 사자를 맞이하라. 기쁘고 흥할 것이다.”  
“으르렁”

## 사자가 온다

권석린 (연극연구소 명랑거울 대표)

### 1. 사자가 온다

이 공연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행진하는 이동형 거리극이다. 이 거리극은 ‘백사진경’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처용가’의 내용에 의지하여 창작되었다. ‘백사진경’은 사특한 것은 막고 경사스러운 일로 나아감을 뜻하는 말로, 연극에서 동네의 여러 가지 사특한 것을 막고 좋은 일을 기원하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신을 담으려 했다. 두 번째는 처용가에서 보여지는 내용에 모티브를 둔 것으로, 작가는 처용가의 숨겨진 뜻이 단지 귀신(역신)을 막는 것에 있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상황을 견디어 넘어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함에 그 저의가 있다 생각한다.

처용가의 전문은 짧으니 기술한다.

처용가 處容歌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들은 내해였고  
들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이 노래를 듣고 처용의 아내와 함께 있던 역신은, 처용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처용의 모습이 그려진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다. 하여 사람들이 집집마다 처용의 모습을 붙였다고 한다는 전설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수호신으로 존재하는 사자를 현실로 불러들이는 데에 있다. 연극연구소 명랑거울이 제작한 사자는 백사자이며 백사자는 실제로 사자를 보지 못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영험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사자의 색에 따라 그 용도가 다르다 전해진다. 처용의 사건에 그 기원을 두고 변형되어 전해 내려온 사자놀이는 복을 빌고 사자의 털을 잘라 때문에 붙이면 악귀를 막아준다는 풍습이 있다. 흰 사자는 평화와 무

병을 상징하며, 붉은 사자는 전염병의 방지, 노란사자는 양식과 부, 푸른 사자는 혼인과 자손의 번성, 흑 사자는 전쟁의 승리를 기원한다. 하여, 연극연구소 명랑거울은 백사자를 제작하였다. 사자놀이의 사자의 경우 백성들의 여러 가지 기원을 담고 있어 그 모양이 해학적이고 상상의 기반에 있음에 반해 2021년의 사자는 누구나 아는 현대 시대에 사자로 불리는 동물의 모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이는 사자의 숨겨진 뜻이 길흉화복의 인생사를 빌어주는 데에 있지 않고, 현대 한국 사회에 잊혀진 사자놀이 자체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2. 등장인물

사자 물이꾼 : 허술한 가면을 쓰고 있으며 재담꾼의 기능을 한다. 코러스들에게 지령을 주고 전반적인 연극을 진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복을 친다.

사자 (무용수 1,2) : 물이꾼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존재, 관객의 행진을 이끄는 존재이다. 움직임으로 물이꾼과 대화하며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간다.

정령 돌 : 가무를 담당하는 정령. 사람들의 기원을 담은 물이꾼의 말에 화답하여, 음악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풀어준다.

리어카 끈 (꽃 차) : 사자보다 먼저 앞서 가며 음악을 담당하는 존재. 깃발을 꽂을 수도 있다.

무대감독 : 코러스들을 통솔하면서 행렬의 전반을 진행하는 스태프. 이곳저곳의 소품들을 챙기고 마차에 실어 운반하며 나눠주는 역할, 일반적인 기술 진행의 역할을 아우른다.

코러스 들 : 가면을 쓰고 있으며, 서리화를 들고 다닌다. 여러 꽃으로 치장을 하고 서리화와 팔로 동네의 복을 기원하는 행동자의 역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가장 주요한 역할들의 배분만 기술하였으며, 공연 시 진행은 무대감독의 판단에 맡긴다.



### 3. 마당들

-1-

관객들이 모여 있다. 코러스들은 가면을 쓰고 동네 입구 어귀에 아주 당연한 듯 앉아 있다. 관객들이 모이면 무대 감독의 신호에 맞춰 물이꾼이 등장한다.

물이꾼 (언덕에서 굴러 등장): 세상이 말야!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말야. 내 참 저놈의 신수 하고는! (욕을하다 관객을 발견한다) 헤헛. 아니 여기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래... 어디서 오셨나? 어디 사는 누구신가?(인사를 한다) 내가 어젯밤 꿈에 말여 불쌍한 고양이 한 마리가 이 길 가에 있어서, 여러분처럼, 아옹 아옹 하면서 울길래, 내가 너 어디서 왔니? 했더니..... 글썸 집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 동네가 너무 바뀌어 가지고 .... 하여, 내가 그고양이 놈 을 찾으려고 하느디 .... 그 놈이 꼭 이렇게 생긴 것이었다 ... 인상착의 ....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그놈이 집을 찾느디 도와주려고 수소문을 하면서 돌아다니느디 ... 영어야. 잉 글리시. 그래서 또 막 공부를 하고 ... 막 가느디 ... 우리 땅 이래 가래 .... 또 막 하려고 하느디... 술먹은 사람들이 막 .... 하여튼 그래. 이쯤 됐으면 찾으러 가야지. 같이 찾아 주 실꺼지요? 그럼 우리 같이 찾으러 가세! 다들 모여라아~ (코러스들이 모인다.)

※ 이제부터는 행진이다. 사람들과 같이 열을 맞추어 행진을 한다. 줄을 세우고 같이 발을 맞추는 연습을 한다.

-2-

둘째마당에 다 다들면 물이꾼이 이야기를 한다.

물이꾼 : 여기쯤 이었는데.. 내가 본 거기가 여기가 맞는데... (한참을 기다린다.)

꽃차꾼:여기가 확실해요

물이꾼 :아 그렇다니까. 어젯밤 꿈에... 그러니까 개가 와서는

꽃차꾼:그러니까 꿈에 본거야?

물이꾼:그렇다니까, 꿈에서 .... 그렇지. 눈 깜아.

꽃차꾼:네?

물이꾼 :꿈에서 봤으니, 꿈을 꺾어야지! 뭐해 어여들 다 눈 깜아. 뭐해? 깜아. 애들아 이 사람들 다 눈 깜았는지 가서 보고 확인해라.

(무대감독 확인하고 알린다. 북소리,가락이 퍼진다.)

물이꾼 :나왔다. 나왔다. 이제 봐.

물이꾼 :그 고양이 놈 한번 불러보자고. 개 이름이... 음...

사자야. 사자. 뭐 지가 뭐 ... 왕이래. 왕이 되네. 자, 불러보자. 사자야~ (안나온다. 보이긴 한다.) 안나오네.

큰 두 눈은 별과 같고, 한번 뒹면 바람을 가르다.

집나갔던 우리 사자 우리 동네 살려온다.

우리 동네 갖은 귀신 싹 다 몰아내고

우리 동네 지켜주러 사자가 온다

(사자가 나온다. 사자가 나오는 동안, 코러스들 서리화를 흔들며 사자를 맞이한다. 다 함께 박수를 친다.)



물이꾼 : (사자에게) 외로웠어?..... 힘들었어?.... 나 보고 싶었어? ..... 자 이제 사자가 나왔으니 우리 사자 집 찾아 주러 갑시다! 쳐라! (음악 나온다.)

※ 행진을 할 때 물이꾼들은 팔을 뿌리기도 하고 팔알을 관객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서리화로 길 담을 쓸어주기도 한다.

-3-

갈림길을 마주친 사자 일행은 힐사이드 앞에 멈춘다. 물이꾼은 왔다 갔다 하며 허둥지둥 댕다.

물이꾼 :자, 사자야. 이리로 가야 하나? 저리로 가야 하나? (사자에게) 여기가 맞니? (사자는 모른다) 이쪽이 맞니? (사자는 가우뚱) 아, 어디로 가나.....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럼 우리 사자가 갈 길을 한번 닦아 줘야겠다.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동네에는 한두 가지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이 동네도 몇 가지가 있어. 우리가 기왕 사자를 불렀으니 이런 거 다 쫓아내고 가야하지 않겠어. 보자.... (쪽지를 꺼낸다.) 그래서 내가 미리 사연을 좀 정리해왔어. 사자야. 잘 들어라!

※ 관객들과 나누어서 읽는다.

1.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긴 혼자계신 어른들이 많은데,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꼭 줄초상이 나. 혼자 살고 계신 어른들 행복하게 잘 계시다가 가실 때 잘 가시도록 해주세요.

2. 여긴 전국에서 고향을 떠나 온 분들이 많은 동네야. 다른 나라에서 오신 여성분들도 있고 타지생활을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잘 되셔서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3. 쓰레기 분리배출 잘하게 해주세요. 특히 재활용이나 음식쓰레기 이런거, 동네사람들이 제발 잘 버리게 해주세요.

4. 미군부대 주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예요. 어서 빨리 캠프 스텐리 미군부대 철수하고 이 땅이 우리 동네사람들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 이 동네는 특히 밤에 어두워요.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여자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6. 술 먹고 주정부리는 아저씨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분들이 치료 잘 받고 좋은 분들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7. 동네 고양이들이 아픈 고양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잘 치료받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경도 더 이상 파괴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사자에게 소원을 비는 풍경\_권석린, 김이박



퍼포먼스\_더 튼

몰이꾼: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가 봅시다. 여기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빌러 풀러 가 봅시다. 자 가자!  
(음악)

※ 이쯤에서 사자탈을 든 요원을 바꿔준다.

-4-  
캠프스탠리 앞에 공터로 간다. 정리되는 분위기

몰이꾼:아니 여기 길이 왜 없어? 사자야! 너 길 잘 못 들어온거 아니냐?

(사자 대답이 없다.)

몰이꾼:아니 우리가 길을 잃었다. 뭐라고? 아... 음... 원래 여기에 길이 있었다고? 아... 그런데 여기 산을 넘어가야 뚫리는데... 음... 아직까지 하이고 그렇게 된 것이었다...

여기가 꽤 막혀있으니. 이 사자가 훗날 날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땅을 뺏겼으니 날아도 내려올 곳이 없었구나. 죽이고 빼앗고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았으니 우리 사자들이 살 수가 없었구나. 큰일이네.... 큰일이야. 녀이라도, 혼이라도, 이 정신이라도 넘어가면 좋을 텐데 말이야. 몸은 이 무식한 것들한테 막혀있어도 우리네 마음이라도 넘길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아! 그렇지!!! 마음은 그럴 수 있지.

(복을 친다.)눈 깜아. 아 우리네 마음이라도 이 담장을 넘어 산꼭대기까지 훨훨 날려보자!

(노래:더 튼)  
정령의 터 닦기 춤이 시작된다. 춤이 끝나면 이동하며 힐사이드로 향한다.  
코러스들, 악기를 나눠 들며 연주하며 나아간다. 힐사이드로 이동.

(이동)  
힐사이드 앞 연주가 시작되면, 몰이꾼 행렬의 중앙으로 나와 기원을 한다.

몰이꾼:기원하노니!  
이 미군부대 빨리 없어지고 좋은 땅으로 사람들에게 잘 돌아올 지어다.

고생 많았던 동네 어른들이 잘 계시다가 잘 가실 지어다. 고향 떠나오신 분들, 잘 되셔서 고향으로 잘 돌아갈 지어다.

쓰레기 분리 잘되고, 꽃향기 나는 동네 될 지어다. 밤에도 어둡지 않고 밝은 동네 될 지어다. 술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분들. 헤어 나올지어다.

동네 풀한 포기, 꽃 한 송이, 아픈 고양이들까지 모두 다 귀하게 될 지어다.

모쪼록 온갖 잡귀 다 물러가고 좋은 동네 될 지어다.

(연주)



베벨보관소에 들어온 사자\_ 당일 야외에서 공연을 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장대비로 베벨보관소 실내에서 더튼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권석린은 작가, 연출가, 움직임 연출가, 무대감독 등의 활동을 하는 '거리예술의 잡부'라 불리길 좋아한다. 세상오만가지 연극을 연구하는 집단 "연극연구소 명랑거울"의 대표이며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을 창작하는 걸 좋아한다. 대표작으로, 큰 구 안에 갇혀있는 남자의 삶을 노래한 이동형 거리극 '혈혈단신' 베트남 전쟁에 비추어 한국 현대사의 폭력을 들여다본 움직임 주동연극 "잠재된 눈물" 등이 있다.



‘빼빼보관소-삶과 예술을 보관하다!’  
공간 축원문 祝願文

여기가 배나무 밭이 많아 뱃벌  
한번 들어오면 밭을 뺄 수 없어 빼빼  
뽕풀이 가득해서 뽕뽕  
여기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9번길  
70년 넘은 경계의 벽  
미군부대 담장 끼고 걸어 올라가는 길  
낮이면 바람 잘 들고 해 잘 들고  
밤이면 달과 별 문 두드리는 공간  
이 곳 닫혀져 있던 공간의 문을 다시 연다  
빼빼 보관소

1960년대 70년대 전당포 운영했던 이곳  
양복점, 피자집, 바였던 이곳  
먼저 목은 공간에 미군이 남기고 간 말  
1달러 지폐 위 낙서  
'Thirsty Thursday Tuesday Dequilla'  
고립과 일탈의 시간 잘 지워지지 않는 먼지로 남아있네  
언덕 위 햇살 잘 드는 이곳 이제 이곳을  
주민들의 삶을 예술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이곳  
빼빼보관소라 부르네  
누구든지 머물러 갈수 있는 쉼터가 된다  
누구든지 그림을 그리고 시를 부른다  
지금 이 삶이 예술로, 예술이 삶이 되어  
보관 된다 기억 된다 그래서 보관소다

삶이 예술이 되어 나눔 되면 이곳이 -  
나 - 너 우리의 새로운 기억이 이곳에 -  
이곳 빼빼 - 사람들과 공생한다 빼빼 보관소  
고된 노동, 가난한 노년 여성들의 삶  
접힌 주름 알 수 없는 세월,  
혼자 사는 노인의 굶어진 골목  
놀이터 없는 아이들  
아파트 시멘트 냄새를 싣고 달리는  
바위 같은 노동의 무게 잿빛 스타렉스  
쉼터 없는 이주노동자들 스치는 오래된 미소들  
여전히 알 수 없는 나와 너 우리가 된다  
고양이와 강아지, 꽃과 벌, 담비와 수락산,  
돌과 바위, 태양과 달, 망태버섯과 마르지 않은 계곡의 물  
순환되지 않는 것보다 순환되는 것과 공생 한다  
지금 이 순간과 공생 한다  
빼빼 보관소



축원문 퍼포먼스  
공간 축원문 | 김현주  
퍼포먼스 | 랩퍼 수환 오



랩퍼 수환 오는 힙합 래퍼, 크리에이터로 2015년부터 의정부와 서울을 기반으로 공연, 콘텐츠 제작 등 힙합 문화 전반에 연결된 활동을 하고 있다. 현 유튜브 파트너 크리에이터로 힙합 문화의 역사를 다룬 콘텐츠를 제작하며 힙합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이박



김이박\_진심으로 축하합니다\_화환,잡초 등\_설치,가변크기\_2021



빼빼마을을 답사하며 알게 되었던 재개발, 부동산 계약, 일신상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원래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이주해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고향 부산을 떠나 이사를 수없이 다닌 나의 삶과도 닮아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 번 뿌리내리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이유로 이동하거나 사라지는 수많은 식물들의 사정과도 같아보였다. 하지만 식물, 혹은 떠나거나 그곳에 남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좋은 삶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각고의 적응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빼빼마을에 살았던 이주민들, 그리고 아직 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 모두에게 그들의 노력을 ‘축하’ 해주고자 축하 화환을 이용해 화환을 해체하고 화환에 있던 꽃들과 빼빼마을에서 수집한 잡초와 식물들을 이용해 재조합하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김이박(본명:김현영)은 타인의 식물을 치료하는 <이사하는 정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의뢰자-식물-작가”의 정서적 유대와 의뢰자의 환경이 식물에 어떠한 영향 주는지에 대해 찾아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픈 식물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식물과 의뢰자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두루 살핌으로써 식물과 관계를 맺는 각각의 요소들의 상호관계성에 주목하는 작업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 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는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식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치료사의 역할과 의뢰자와 식물의 상황을 인지하고 조사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로잉과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입니다.

비스듬히 모여 앉는 자리들 오로민경



오로민경\_비스듬히 모여 앉는 자리들\_테이블(스튜디오 에어 제작), 소리 작업(김하민 협력), 진동스피커, 혼합매체\_2021

오늘 하루, 매일 감각하는 풍경과 말, 소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서로 다른 몸을 두고 우리는 어떤 시선과 소리들 사이를 서성이고 있을까? 다각형의 테이블에 둘러 앉아 함께 만든 빛의 모양의 흔들림, 어디 선가 들리는 작은 소리들을 귀를 대고 감각해 봅니다. 『비스듬히 모여 앉는 자리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비스듬한 시간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작은 자리들입니다.



오로민경은 자연, 사회 현상을 탐구하며, 미술과 음악, 움직임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억 흔들리는 잎의 미묘한 떨림 등을 관찰하며 & 더 작은 힘 & 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질문해보고 있습니다.

가공공간 장영원



장영원\_가공공간\_단체널 비디오\_10:00:00\_2021

단체널 영상 『가공공간』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리모델링 과정을 영상 에세이로 서술 하면서 장소 특정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되묻는 내용을 가진다. 영상은 읽기, 쓰기, 듣기, 보기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지역과 장소에 관한 해석과 해체를 시도한다.



장영원은 장소로부터 개인에게 전이되는 스트레스들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치, 회화, 영상 등 다매체를 활용하는 다원 예술가이며, 서울과 수도권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고 있다.



전병철\_뽕풀\_에바폼\_벽면에 설치\_200×80cm\_2021



과거 빼빼마을에는 ‘뽕’이라는 식물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동네 어르신들은 말한다. 이 뽕대를 소재로 마을 내 과거 미군전용 바(bar)였던 힐사이드의 외부 벽에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곳은 현재 리모델링을 마치고 프로젝트전시 오픈과 더불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침 동네주민인 이강수님이 2019년 김현주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신 그림이 있어 이 강수님의 그림을 기반으로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힐사이드 외부 벽에 뽕대 드로잉을 내구성 있는 판재를 올려 채색한 후 설치하려고 한다. 뽕대를 모아 자기 나이 수 만큼 끈으로 묶은 후 불을 대보름 날 불을 지피며 소원을 빌며 놀던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지길, 미군부대인 캠프스탠리가 반환되어 상처 난 수락산자락이 본래대로 복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다.



전병철은 중앙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그림을 그리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포장지나 종이박스 등을 사용해 입체작업과 설치작업을 주로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미술이나 전래설화에서 소재를 얻어 현대사회와 역사를 연결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였고, 지금은 강릉 시골집에서 살며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작업구상중이며 때때로 미술프로젝트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현주, 조광희\_빼빼, 뽕뽕, 스탠리빌\_디지털 프린트, 20x20cm, 102점\_가변설치\_2021



김현주, 조광희\_Thirsty Thursday, Tequila Tuesday\_미군전용바 ‘힐사이드’에서 나온 지폐와 낙서, 혼합매체\_가변크기\_2021

힐사이드는 2017년도까지 운영되어 왔던 미군전용바였다. ‘Thirsty Thursday, Tequila Tuesday’는 공간을 드나들던 미군이 천 원짜리 지폐위에 남겨 놓은 메모다. 성적인 농담과 욕설, 현재 혹은 과거의 애인들의 이름들 속에서 발견된 ‘Thirsty Thursday, Tequila Tuesday’ 라는 글귀는 군대생활의 고립감과 함께 버무려진 일탈감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어떤 이들은 미국비자를 얻어 미국인이 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정체모를 누군가를 위한 애국자가 되기 위해 미군이 되길 결정했다. 누군지 모르는 떠나간 미군들의 낙서들을 보관해야 할까? 보관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빼빼보관소: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 김현주, 조광희



김현주, 조광희\_빼빼보관소: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_판화지에 잉크젯 프린트\_65×160cm\_2021



『빼빼 보관소-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작가가 2019년부터 촬영해온 빼빼마을의 풍경과 주민들의 모습들을 하나의 화면 안에 재배치한 일종의 콜라주 작업이다. 마을 내 지역커뮤니티 예술 공간 『빼빼보관소』의 문을 열며 이곳에 놓일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주민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 이웃한 사람들과 풍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70년 세월 여전히 넘나들 수 없는 미군부대의 담장, 사라진 배꽃과 뽕풀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현주씨”라는 말로 인사를 건네던 주민, 시멘트 담장 사이 좁은 땅에 가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게 한 나이트 언니의 손길, 계곡과 마을을 넘나드는 담비, 수락산 깊은 숲을 걸어야 마주할 수 있는 망태버섯. 주민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한 장의 단체사진이 내 삶이 있는 곳에 공존하는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이 호명될 수 있길 바란다.



김현주는 독일 카셀국립대학교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였고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사회론적 질문과 함께 낙후되거나 재개발을 앞둔 장소, 혹은 사회적으로 은폐된 장소를 대면해 왔다. 지역의 역사와 현재의 삶을 관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작가의 작업은 자신의 몸을 지역의 특정 장소와 사람에게 밀착시켜 작가 고유의 내부적 경험과 미시적 시각을 만들어 낸다. 빈 장소나 버려진 사물들, 사라지거나 없어진 존재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것들이 견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몸으로 수신하고자 했던 일련의 행위들은 통속화 되거나 은폐된 이야기를 현재의 시간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사건화하고, 휘발된 이야기들의 본질을 다시 현세화하여 조망하고자 하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 활동들은 “역사와 개인의 상처를 화해하고 해소하려는 [임상역사]적 성격이 있다.(공성훈)”라는 평과 함께 작가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소외된 죽음을 위령하고 [보통의 삶]을 동시대로 불러 세우는 작업을 시도한다.



조광희는 드로잉, 애니메이션,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사물과 기억의 미디어적 기능을 탐구하고 그러한 운동성을 애니미즘적 생명성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상실되거나 파편적으로 편제된 현대문명의 풍경을 특정 장소의 서사로서 기억을 연결하고 함께 공유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최근 작가는 경기북부로 이주하면서 지역과 관련한 전쟁의 많은 상흔을 접하게 되었다. 전쟁과 산업화 속에 지워지고 묻혀진 우리의 모습을 사실과 관념의 연결과정에서 새로운 배열과 위계를 찾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커뮤니티아트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는 구술자에게는 좋은 [질문]을 묻고 이 세계와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예술적 표현 방식을 실천한다.

## 빼빼은 공공공 작가 워크숍: 느슨한 연대를 위한 몸짓기

[빼빼은 공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한 7인의 예술가들이 본격적인 예술창작에 앞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에서 이뤄지는 산책과 몇 가지 놀이를 통해 느슨한 연대를 이룬다.

### 함께한 사람들

권석린, 김이박, 김현주, 오로민경, 장영원, 전병철, 조광희, 황재영(주민)

### 산책 동선

두레방 - 오복식당 - 송산반점 - 미군출입문 - 빼빼계곡 - 놀이터, 고산경로당 - 킹클럽 - 전주 이씨 제실 건축현장 - 주차장이 된 락시클럽 - 힐사이드



느슨한 연대를 위한 몸짓기  
좌부터 김이박, 조광희, 권석린, 김현주, 전병철, 마을안내자 황재영, 오로민경, 동네친구 황효빈, 장영원 \_ 2021.05.01.



느슨한 연대를 위한 몸짓기II  
마을에서 주문 물건들, 놀이터 위에 공동 설치 \_ 2021.05.22.

### 1차 2021.05.01.

마을주민 황재영님의 안내와 함께 빼빼 초입부터 계곡에 이르는 마을의 다양한 장소들을 구석구석 걸었다. 한국전쟁 이후 총 10개의 미군부대가 의정부 지역에 들어서면서 캠프스탠리와 함께 형성된 정착촌 마을 빼빼 이야기, 기지촌여성의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1986년 설립된 두레방 이야기, 미군감축과 토지 임료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쇠락,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이야기 등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 2차 2021.05.22.

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동네를 각자 산책한다. 검은 봉지를 들고 마을에 버려진 사물들 중 이끄러는 것들을 수집하여 놀이터에서 모인다. 철거된 집터, 동네 길가 곳곳에서 발견된 사물들을 늘어뜨려 놓은 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쥐뿔, 돌과 시멘트, 인형, 꽃, 구두, 노래방 책 등 다양한 사물들은 마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미시적으로 들려주고 있었다. 작가들이 수집한 사물들을 즉흥적으로 연결하여 공동설치 한 후 잠시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별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진행 풍경\_2021.05.22.



느슨한 연대를 위한 몸짓기III\_ 마을에서 주문 물건들\_ 2021.05.22.

## 빼빼로는 공공공 시민참여 워크숍

사전워크숍을 통해 예술인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 전시 되고, 거리극 공연을 함께 만든다.

### 반짝, 빼빼, 살랑 모빌워크숍 오로민경



#### 워크숍 참여자

고중주  
이순자  
황재영  
김현주

우리들 마음은 바람 결을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있어요. 함께 흔들릴 때, 웃음도 생겨요. 함께 웃을 때 우리는 반짝여요. 오늘 하루 내 머리를 비추는 태양의 빛, 그리고 나를 웃게하는 순간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며, 함께 빛을 모으는 “반짝, 빼빼, 살랑 모빌”을 만들어 보아요.

다양한 두께의 색상 철사와 자연물, 종이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led조명도 달아줍니다



이웃집 박영숙님이 주신 여름 자두 \_2021.07.08.



반짝, 빼빼, 살랑 모빌 \_오로민경 작가님과 이순자님 \_2021.07.08.

## “으르렁” 빼빼 - 사자가 돌아온다! 권석린

#### 워크숍 참여자

황재영  
디나라  
최성인  
오수환  
조은지  
눈이 초롱초롱한 여섯 살 소녀

2021년 7월10일 미군기지 캠프스탠리와 접경한 마을 의정부 빼빼에서 예술공간 <빼빼보관소>를 열어 연출가 권석린, 뮤지션 더튼과 함께 시민참여 거리극을 준비합니다. 거리극에 참여하여 함께 ‘사자’가 되고 마을의 복을 기원하며 경계 넘기 놀이에 함께 으르렁 거릴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종이봉투를 활용하여 사자가면을 만들고 당일 공연에 앞서 거리극 동선을 익힙니다.



“으르렁” 빼빼 - 사자가 돌아온다! \_워크숍 풍경\_2021.07.09.



## 나에게 필요한 향기: 친환경 손소독제 제작 워크숍 정강실

여기 여러 장의 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 이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향기로 채워진 손소독제를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향기: 친환경 손소독제 제작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과 관객들 풍경\_2021.07.10.





유치원 가는 아침\_황재영

친애하는 나의 오늘

## 친애하는 나의 오늘

프로젝트 기간      마을주민 | 고중주, 성현자, 장보영, 조춘자, 최희순, 황재영  
 2021.07.01. - 07.31.      기획·진행 | 김현주, 조광희  
 전시기간  
 2021.07.29. - 07.31.



“  
 여기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드립니다.  
 매일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 담아보고 싶은 물건  
 아름답다고 느끼는 순간을 촬영해 주세요.”

빼벌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사, 아이를 혼자 키우는 주부, 얼마 전 남편을 보낸 후 혼자 된 할머니, 고물 줍는 할아버지,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만 실 수 있는 일을 하는 중년의 가장, 미군이 떠난 후엔 내키시는 날에만 장사를 하시는 치킨집 사장님 등 조용해 보이는 마을 어딘가에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시간들이 빛을 발하며 움직이고 있다. 종종 마을을 오감에도 내가 여전히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코로나로 인

해 소통이 더욱 어려워진 요즘 마을 주민분들에게 카메라를 드리다면, 그리고 하루에 세, 네 장 촬영을 통해 기록된 각기 다른 일상의 순간들이 마을 내 공간에서 전시를 통해 공유된다면 어떨까? 주민 스스로가 자기 삶의 일주일이라는 일상의 순간을 필름 카메라에 담아보는 <친애하는 나의 오늘>은 카메라를 든 주민에게는 잠시 여행하듯 삶의 순간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상상했고 매일 매일 ‘오늘 아름다운 것은 무엇까,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며 카메라를 들고 일상의 삶, 사물, 풍경들을 사색하는 주민들의 몸짓을 상상했다.



1. 필름 안에 든 사진들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하며 사진과 관계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  
 2. 고중주님이 글을 쓰시는 모습  
 3. 고중주, 장보영, 황재영님이 쓰신 '친애하는 나의 오늘'  
 4. 옥섭할머니가 주신 박카스와 황용섭님이 주신 옥수수과 복숭아

전시를 감상한 주민분들의 반응이 재밌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빼벌 마을 초입이잖아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뻐?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의아해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마주하는 게 즐거웠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은 4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각자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촬영된 시간의 풍경 또한 다양했다. ‘좋아하는 것’,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을 촬영해달라는 요청에 주민분들의 시선으로 포착된 사물과 풍경을 막상 사진으로 접했던 순간 내 마음도 기억이 난다. 마을의 따스함과 아름다운 풍경에 나 또한 놀랐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의 기쁨과 아름다움 그리고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마음을 몽클하

게 했다. 내가 모르던 주민들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사진을 통해 주민들의 일순간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카메라-이 작고 검은 상자가 마치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이라 여겨졌다. 그 작은 상자 안에 담긴 마음의 사물들과 풍경들은 일상이라는 탈속에 갇힌 우리 삶의 본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맑게 드러내주고 있었다.

매일 똑같아 보이던 일상에서 무엇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이끄는지,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촬영하던 주민들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오늘’들이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방을 노크했다.

친애하는 나의 오늘, 우리의 오늘들이 빼벌에서 빛을 발하며 다시 플레이 되는 봄날을 맘껏 상상해 본다.

2022.01.



제일 먼저 복순이를 찍었다 고중주



**하나.**  
 제일 먼저 복순이를 찍었다.  
 복순이는 나의 와이프다.  
 복순이는 올 해 일흔 일곱이 되었다.  
 복순이는 예쁘고 못하는 게 없다. 다 잘 한다.

**둘.**  
 그 다음 젊은 사람 조광희를 찍었다.  
 예쁘다.

**셋.**  
 우리 집 앞 상추를 찍었다.  
 스타닭집 상추다.

**넷.**  
 빼벌은 공공공을 찍었다.  
 공연이 좋았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다섯.**  
 영태네 집 개를 찍었다.  
 영태가 사랑하는 개다.  
 나도 그 개를 사랑한다.

**여섯.**  
 골목에 꽃을 찍었는데 예쁘지만 기억이 안 난다.  
 이름 모르는 꽃이다.



**일곱.**  
 그 다음 미장원집 앞에 화초를 찍었다. 좋다.  
 마음에 든다.

**여덟.**  
 고양이를 찍었다.  
 요 밑에 주차장에 사는 고양이이다.  
 사진 찍는데 도망을 안 간다.  
 그저 그렇게 생긴 고양이이다.

**아홉.**  
 아이 참.  
 오토바이 타는 거시기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다.  
 내가 사진을 찍는데 친구는 가만히 있었다.

**열.**  
 동표네 집을 찍었다. 그냥 찍었다. 꽃이 좋아서.  
 동표는 여든 세 살이고 나는 여든 네 살이다.  
 동표랑 나는 친구다. 동표도 꽃을 좋아한다.  
 동표는 집에서 논다. 뭐하고 노는지 모르겠다.

**열하나.**  
 윤씨네 집을 찍었다. 윤씨는 세상을 떠났다.  
 윤씨가 살던 이 집은 원래 장사가 잘되던 중국집이었다.  
 중국집 하던 사람은 대구로 이사 갔다.  
 미군 떠나고 고향으로 가버렸다.

**열둘.**  
 또 꽃들을 찍었다.  
 나는 꽃을 좋아한다. 특히 장미꽃을 좋아한다.  
 꽃이 그려져 있는 와이셔츠를 입었다.  
 우리 딸이 사다준 옷. 맘에 든다.



**열셋.**

나는 우리 집을 찍었다.  
얼마 전 아들, 딸이 와서 집을 고쳐줬다.  
아들과 딸이 자주 온다. 나는 아들, 딸 둘 다 좋다.  
아들은 고기 사오라고 하면 사오고 딸은 옷을 사준다.



**열넷.**

나는 상장을 찍었다.  
도지사 상, 장관상을 받았다.  
소방서 다니면서 동네 불을 껐다.  
예전에 빼벌에는 불이 자주 났다.



**열다섯.**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야인시대 드라마를 찍었다.  
싸우는 모습이 재밌다.



**열여섯.**

그 다음 누구네 뒷마당을 찍었다.  
경치는 좋은데 어딜 찍은 건지 통 기억이 안 난다.  
또 마당 안에 꽃을 찍었다. 마당 안 내 그림자를 찾아보시오.  
마당에는 장독대, 화초, 둥근 테이블이 있었다.  
어딜 찍었는지 기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을 찍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왜 점점 더 보고 싶은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장보영

띄엄띄엄 한 2주 동안 사진을 찍었다. 자꾸 카메라를 집에 놓고 나와서 꼭 찍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못 찍었다. 진짜 그랬다. 항상 휴대폰으로만 사진을 찍다가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이 불편했다. 필름을 감아야 되니까. 친한 언니가 사주었던 십년신은 노스페이스 운동화를 버리기 직전에 찍었는데 안 나와서 너무 아쉽다. 사진을 제때 찍지 못한 게 미안했다. 막상 촬영한 사진 전체를 보니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

장독대와 능선화.

집에는 어머니 손 때 묻은 살림들이 아직 남아있다. 어머니의 장독대와 옷 안사고 산 꽃들이 맘에 든다.



**하나.**

민락동 길훈 신안 아파트에 장 서는 날 옷 안 사고 꽃을 샀다. 하나씩, 하나씩. 카라, 제라늄, 카랑코예, 제비꽃, 수국, 치자, 익산호... 또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려 지금은 대부분 죽었다. 애도 죽고, 애도 죽고, 애도 죽고 수국이랑 애네만 살았네. 가을엔 예쁜 국화를 심어야지.

**둘.**

남편이 여섯 마리 길고양이 밥을 주는 곳.

**셋.**

가지와 허브 그리고 상추. 가지는 다 키워서 가지나물을 해 먹었다. 상추도 다 먹었다. 7월초 모두 꽃을 피우고 운명을 다 했다. 8월 지나 가을 배추를 심으려고 땅에 있는 풀들을 낫으로 다 베었다.



**넷.**

시어머님 장독대. 시어머님은 2008년 3월에 돌아가셨고 장독은 남아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장독 안에는 어머니가 넣어 두셨던 묵은 나물과 천일염이 그대로 있다.

**다섯.**

이걸 왜 찍었지? 12시 23분 승준이 모습.

**여섯.**

부엌에서 누가 날 찍었지?

**일곱.**

화분 안에 화초. 이걸 내가 왜 찍었지? 아, 생각났다! 화분 안에 카라 뿌리를 심었다. 새싹이 예쁘다. 내가 나이를 먹 나보다. 화초들은 누가 줘도 안 가져왔는데 지금은 너무 예뻐서 내 돈 주고 산다.

**여덟.**

운동하라고 남편이 갖다 준 자전거. 한 손으로도 탄다며 자랑하다가 바로 넘어졌다.



**아홉.**

승준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심어놓으셨던 능선화. 작 았던 능선화가 매 해 자라서 지금은 지붕을 덮는다. 꽃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고 요즘은 더 생각난다. 맨 날 싸 윳던 시어머니가 왜 점점 더 보고 싶은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열.**

어머니는 고산제일교회를 다니셨다. 예전엔 교인이 5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열하나.**

운동하려고 산 내 모자. 노브랜드에서 2만5천 원 하던 거 세일해서 5천8백 원 주고 샀다. 아싸!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하... 예쁜 모자 잃어버리고 지금은 할머니 모자 쓰고 운동 다닌다. 하루에 40분 정도를 걷는다.

**열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가 TV에 나왔다. 너무 반가워서 찍었다.

**열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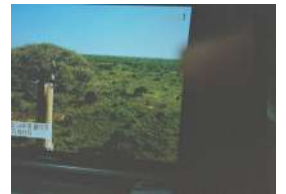
첫 열매. 직접 집에서 키운 고추와 가지.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 아무것도 안 줬는데 잘 컸다. 완전 유기농.

**열넷.**

기특한 우리 딸. 중학교 일학년 우리 딸이 아홉 개의 상을 받아왔다. 엄마가 못 챙겨주는데도 혼자서 잘해주는 우리 딸.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어떤 일을 할 때 큰일이든 작은 일 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다. 피아노 가르쳤을 때, 주간 학습지 선생님 했을 때 보다 지금 하는 요양 보호사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 무시를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딸아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열여섯.**

나무에 장독이 열렸습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를 자세히 보세요.



더 찍으려면 지워야해요 성현자



성현자님은 하옥섭 할머니댁에서 사신다. 두 분 모습은 때론 자매 같기도 하고 모녀 모습 같기도 하다. 옥섭 할머니를 부르면 성현자님이 마중을 나와 반기시고 현자님을 부르면 옥섭 할머니가 '들어와'하며 반기신다. 폴더 폰을 사용하시는 현자님께서 종종 물으셨다.

'작가님, 제 핸드폰이 이상해요. 사진을 더 찍을 수가 없어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매번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귀한 시간이 담긴 사진을 버려야 다시 찍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매번 다른 사진을 버려야 하는 상황.

그 때 짬 일회용 카메라를 드렸다.

성현자님 댁 무너져 가는 담벼락과 엉킨 전선줄 너머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그 나무를 잘 찍고 싶다고 얘기하셨다. 그리고 몇 차례 찍으셨다. 나의 핸드폰으로도 찍으시고 필름 카메라와 폴더 폰으로 번갈아가며 찍으셨다.



성현자님이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건 은행나무다.



## 내년에도 이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황재영



3주 동안 촬영을 했다.

비오는 날은 사진을 안 찍었고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은 날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와이드하게 촬영할 수 있는데 작은 필름카메라로 넓은 풍경을 담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달로가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숙제처럼 찍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아날로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이 재밌게 느껴졌다. 핸드폰으로 한 번 찍고 필름카메라로도 번갈아 찍었는데 나오지 않은 풍경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집 실내에 있는 효빈이의 모습, 등산길의 풍경.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었을 줄 몰랐다. 촬영된 사진을 보니 과거와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을 보니 예전 추억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내년에도 내가 촬영했던 이 길들과 장소를 볼 수 있을까? 공사가 많고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사라질지도 몰라 안타깝다. 이곳이 재개발이 된다면 월세가 올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곳에 계속 살고 싶다. 살 수 있다면. 불편한 것이 많지만 빼별은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하나.

우리 집에서 바라본 풍경.

길에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북적일 때도 있다.

길이 외로워 보였다.

**들.**

우리 동네 오복식당이 있는 골목길. 오른쪽 담벼락에 있는 꽃들을 찍으려고 했다가 옛날 내가 살던 골목길이 생각이 났고 골목을 모두 담기로 했다.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느껴졌다.

**셋.**

2021년 6월. 이 집 이모는 꽃을 좋아한다. 이곳에서 해마다 효빈이 사진을 꽃과 함께 찍었다. 효빈이 크는 모습이 보인다.

**넷.**

효빈이 어린이집 가는 등교 길. 매일 아침 9시 10이면 어린이집 차가 효빈이를 데리러 온다. 요즘 코로나로 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다. 효빈이는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선생님을 못 만나고 있다. 코로나가 0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효빈이가 기도한다. 옆에 있는 친구는 화윤이다. 화윤이는 올 해 네 살이 되었고 효빈이는 일곱 살이다.

**다섯.**

효빈이가 자기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

**여섯.**

예전에 우리 집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집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텅해졌다. 거기서 사셨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 하셨다. 친한 분들이 많았고 보고 싶은 분들이 많다. 이곳에 살고 싶었지만 월세가 비싸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 외국 사람들에게는 방을 많이 임대해줬는데 정작 주민들이 이사 갈 곳은 부족했다.

**일곱.**

아랫집에서 키우는 화초들.

**여덟.**

옆 집 옥상 텃밭. 옥상에 흙을 퍼다가 텃밭을 만들었다. 겨울에는 냉이가 자라고 여름에는 상추, 고추, 방울 토마토 등을 키우신다.

**아홉.**

효빈이의 출근길. 오전 8시 55분 한결같은 아침. 이 시간이면 어린이집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나선다. 효빈이가 분홍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고 옷에 어울리는 머리를 해줬다. 슬프다. 많이 큰 효빈이는 요즘에는 '같이 가자'고 해도 날 버리고 혼자 걸어간다. 효빈이의 사진 속 모습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

**열.**

효빈이가 촬영한 사진. 뽕뽕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찾아왔다. 효빈이가 마을에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한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체험활동 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어 해서 찰칵.

**열하나.**

오늘도 즐거운 어린이집 가는 길.

**열둘.**

'하윤아!' 하윤이 엄마를 촬영하고 싶었지만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한다.

**열셋.**

나만의 텃밭. 올 해 6월 말 오이를 심었는데 열 네 개가 열렸다. 얼마 전 오이를 따서 오이지를 만들어 먹었다. 지금은 여섯 개가 열려 있는데 김밥에 넣어 먹을 계획이다. 효빈이와 같이 오이도 따고, 고추도 따고, 호박도 따는 재미가 있다. 아이와 같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게 좋다.

**열넷.**

우리 집 마당 효빈이와 조카인 한솔이 모습. 마당에서 나비, 개미, 사슴벌레, 무당벌레들을 보며 둘이 좋아한다. 곤충들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한다. '엄마, 애네들은 무얼 먹고 살아요?' '이슬 먹고 살지.' 효빈이는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열다섯.**

오복식당 앞 어린이집 매퍼



**열여섯.**

토끼와 효빈이. 몽실이와 효빈이가 만난 지 일주일 되는 날. 효빈이는 토끼를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한다. 혼자다 보니 외로움이 많은데 동물에게 많이 의지한다. '몽실아, 내 동생 이리와~!'

**열일곱.**

등교하기 전 효빈이. 아침에 몽실이에게 밥을 주고 난 후 어린이집에 간다. 할아버지와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하는 효빈이.



##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조춘자

조춘자님이 운영하시는 스타닭 집에서 치킨을 먹으려면 며칠 전에 미리 부탁을 드려야 한다. 고소한 돼지불고기에 얼큰한 동치미를 먹은 적이 있는데 조춘자님 마음처럼 따뜻하고 푸짐하고 고소하다.



하나.  
마을이 사라진 집터



둘.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셋.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넷.  
의정부전철역



다섯.  
도둑계장 먹는 날

여섯.  
내가 키우는 식물들



일곱.  
우리 가게 앞 의자

여덟.  
누가 날 찍었더라?



아홉.  
의정부 역 앞. 미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공원.



비가 오는 날 하늘 최희순



**하나.**  
마을을 위한 공간 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렵게 공간을 마련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요.

**둘.**  
사진 찍을 때 비가 자주 와서 하늘을 볼 수 있어  
너무 고마웠고요.

**셋.**  
마을을 위한 이런 저런 행사들이 생겼는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넷.**  
일하는 곳 개가 강아지 새끼를 낳았는데 네 마리나  
났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어찌나 우리에서 나오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다섯.**  
용현동에 자그마한 과자점이 오픈 했는데 손님이 제법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섯.**  
우리 집 딸기 공주. 힘이 들 때 항상 밝게 웃어 주는  
우리 집 에너자이저.

**일곱.**  
천로역정을 읽으며 한 컷

**여덟.**  
코로나로 아침 일찍 우리 집사람 검사하러 갔는데  
코로나로부터 언제 벗어 날수 있으려는지...

**아홉.**  
길 건너 복합문화 단지 조성을 보면서 말로만 들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열.**  
울 부랄 친구 오랜만에 함께 식사 하면서.

**열하나.**  
친구가 냉면 집을 오픈 했는데 조금 한산 해서리  
많이 바빠 지기를 바라며...

**열둘.**  
코로나 마스크...

**열셋.**  
종중이 재실을 드디어 건축 하는 구나...





**열넷.**

땅을 종종으로 부터 구입 한 사람, 팔고 나가신 분, 아직도 임료를 내고 사시는 분. 앞으로 우리 마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

**열다섯.**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마을에서 자주 이어져서 슬럼화 되어 가는 마을에 새로운 전환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빼빼ل 재주대장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공연 '땅재주 하늘재주 놀이대장 모여라!'

프로젝트 기간 | 2021.10.22.  
 아티스트 | 김정운, 오경선, 조광희  
 놀이대장 | 라이언, 이승주, 장서울, 테이든, 황효빈  
 행정지원 | 김유미(경기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팀)  
 촬영 | 임창재, 조광희  
 기획 | 김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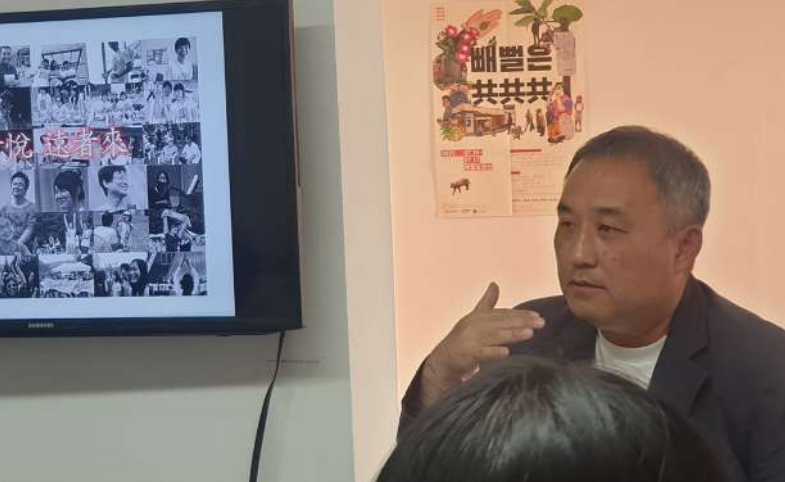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기반으로 교육활동에 활용된 교구\_조광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땅과 재주의 모험지인 '숲-산-강-들판' 네 장소가 한 화면에 펼쳐진다. 각색한 몽유도원도 그림이 무대 배경이 되기도 하고 참여한 아이들의 다양한 상상으로 매번 새로운 그림이 된다.

국악기반의 통합예술놀이 <땅재주 하늘재주 놀이대장 모여라!>는 잃어버린 '놀이'를 찾아 숲과 산, 강과 들판을 탐험하는 이야기꾼과 재주대장의 이야기이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재주대장이 되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고 각각의 장소를 탐험할 때마다 신나는 국악리듬에 맞춰 신체놀이와 조형 활동, 노래 부르기를 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공동체 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본 어린이 참여형 공연은 경기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두천 지역 내 유치원들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빼빼에서는 7세부터 11세의 마을아이들이 놀이대장으로 참여했다.



'땅재주 하늘재주 놀이대장 모여라!' 활동 풍경



## 빼빼로보관소 공간포럼 예술로 삶을 공공 [공감,공진]하기

### 기간

2021.10.20.  
2021.10.23.

### 1부

의정부시의 공진화 전략 - 로컬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지역기반 문화예술기획 전략과 사례  
이선철 선생님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 2부

‘건너마을 빼빼’ 마을 투어  
정강실 선생님 (전 두레방활동가)

지역의 별일하는 예술가들  
이초영 선생님 (별일사무소 대표)



예술로 삶을 공공 [공감,공진]하기 진행 풍경

대도시 언저리에 위치한 빼빼는 약 70년간 넘나들 수 없는 미군부대 경계로 둘러싸인 곳이며, 마을 뒤로는 수락산의 수려한 자연과 앞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고층아파트들이 인접한 곳이다. 이곳과 연을 맺은 이후 누구든지 드나듦과 머뭇을 허락할 수 있는 공간, 목적 없는 놀이와 예술로 ‘지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삶보다 사랑을 질문하는 공간을 상상해 왔다. 여러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애정으로 상상해오던 공간의 문을 열어 예술을 통한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고 보관하는 역할을 해내고자 한다.

조금씩 팽창하는 대도시의 자본 중심의 사회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마을과 더불어 예술공간-빼빼보관소가 해나갈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예술로 삶을 공공 [공감,공진]하기 진행 풍경  
위에서부터 강윤주, 이초영, 이선철, 정강실

× 생  
생

생 생  
생 생

생  
×

프로젝트  
생생 Project  
saengsaeng

프로젝트 기간  
2021.10.01. - 12.30.

기획  
김현주Dalo

전시기간  
2021.11.23. - 12.18.

아티스트  
김윤하  
영호  
이순주  
윤지영



## ‘프로젝트 생x생’



프로젝트 생생 참여작가\_좌부터 윤지영, 이순주, 영호, 김윤하

프로젝트 생생은 네 명의 예술가들이 빼벨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술가와 주민이 만난다면?, 예술이 마을을 만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남’이란 무엇이며, 왜 예술은 삶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 ‘생생’은 타자라 일컫는 다른 삶과 예술을 매개로 만나 마찰하고 교집합되면서 비롯되는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예술가와 주민 서로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상상한다. 나와 너 서로가 주체이면서도 누구도 주체이지 않은 예술의 과정은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타자와의 접속을 의심하는 상태를 유지하며 ‘누구’의 주체로 작동되어온 기울어진 기존의 방식을 밀어내려고 애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과 예술의 마찰이란 눈으로 보이는 물질보다 앞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 존재하며 일렁인다. 기지촌, 슬럼화된 곳이라는 눈으로 보이는 사건으로부터 정의된 한 마을에 대한 다수가 가진 명사적 인식에서 프로젝트 생생은 보이지 않는 삶들과 접속됨으로써 감응할 수 있는 예술의 과정을 주목하고 펼쳐내고자 했다. 이에 네 명의 예술가들이 고안한 소통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간 주민들과 만난 빼벨에서의 여정이 전시장에서 다시 생생하게 시작된다.

2021.11.



맺음상회 전시풍경

생생파트너 | 송영순 (풍천상회)

맺음 상회 운영 파트너 | 오수진

부침개 이벤트 도움 | 장보영, 황재영

생생한 참여자 | 박영태, 김순금, 이순평, 황재영, 이영대, 이승주, 황효빈, 영숙, 신진옥, 성현자, 박기호, 이승수, 안정현, 김운자, 윤지영, 이순주, 오수진, 임지예, 안순희, 김아영, 방경지, 김현주, 황승찬, 구오이, 장윤지, 장미희, 재원, 황재영, 김안정(가명), 송영순, 김아영, 임지예, 이순자

첫 미팅 때 빈 풍천상회의 송영순 할머니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셨지만, 굉장히 총명한 모습을 하고 계셨다.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나이가 많음에도 정정하신 할머니의 모습이 사뭇 낯설게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뽀뽀의 역사를 듣기도 하고, 고민이나 장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첫 날은 담배를 들어오는 날이라 오랜 시간 있지 못하다고 하셔서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주셨던 커피우유를 잊지 못한다.

풍천상회에 처음 발을 딛은 그 날 다른 무엇보다도 눈에 들어왔던 것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힌 화이트보드였다. 그 화이트보드는 외상판이라고 하며, 풍천상회에서 외상한 사람들의 이름, 돈 등을 적어두는 판이었다. 아직도 외

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방식을 통해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와 닿았다.

그 날부터 지속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간혹 못뵈는 때도 있었지만, 전화라도 드렸었다. 할머니는 늘 나를 보면 무언가를 하나씩 주셨다. 할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잔뜩 해주시고, 돌아갈 때면 입구에 있던 따뜻한 쌍화차를 하나씩 꺼내주셨다. 겨울로 넘어가는 그 때, 그리고 아주 추워지던 그 날까지 할머니의 쌍화차는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건네기가 낯설고, 조심스러웠는데 몇 번의 만남 후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도 신경을 안쓰실 만큼 편해졌다. 할머니께서는 이 날 왜 외상을 해주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외상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하나 하나 기억하자면 너무 사소히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모르는 사이여서 지나갈 때 어색했던 그 거리가 전시를 하면서 인사하고, 또 마주할 때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리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할머니와의 거리가 좁혀졌던 이야기들도.



풍천상회 송영순 할머니와 맺음 예술협약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온도의 변화이다. 뽀뽀보관소의 온도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차가웠다. 영하의 날씨에 히터가 멈추기도 했고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전시 중간에 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전시 중에 있던 외상판에 글을 적고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도 전해주던 사람들을 기억하면, 그 시간은 전혀 춥지 않았다. 사람과 사이의 관계의 온도, 그리고 공간에서 사람들이 주는 온기, 이야기를 통해 마음 깊숙이 뜨거워지는 마음 등 모든 것이 물리적 온도를 잠재웠다.

철수하는 날 손을 맞잡아 주시던 송영순 할머니의 따뜻한 손, 따뜻한 쌍화차가 아직도 마음 속에 기억이 남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술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생각에 조금의 힌트를 얻은 것 같다. 여전히 예술은 무엇이다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뽀뽀보관소가 뽀뽀마을에서 하고 있는 예술은 정말 유효했고, 유효하

며, 유효할 것이다. 예술이 그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주는 것보다 일상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웃음을 짓는 것,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술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억한다.



맺음상회 부침개 나눔 이벤트



맺음상회 내부전경



김윤하, 무엇이든 이야기해주세요!, 책상과 의자, 퍼포먼스, 2021



외상값\_영상, 가변설치, 2021



외상값은 주고 가\_대형화이트보드\_가변설치\_2021



김윤하는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 찌꺼기, 휘발되는 기억, 스치는 감각과 같은 쓸모없고 미시적인 것부터 매우 개인적이어서 의미 없어 보이는 서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수집한 뒤 수집된 것들이 주는 의미들을 해석하여 영상, 설치, 회화 등 다양한 방식의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일상에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 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 관객들과 이야기하기를 도모하고 있다

영호름 영호



영호름 전시풍경

생생한 참여자 | 고중주, 박기호, 박광길, 박복순, 신진옥, 오경자, 이갑수, 이필선, 이승주, 이철구, 왕학검, 왕희관, 유상호, 장보영, 최승준, 최승환, 최창선, 하옥섭, 황용섭, 황해인



영호름 워크숍 당일 이발하러 오신 주민들 모습

지역문화재생밧발굴 혹은 공공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책임 또는 주제의식보단 개개인과의 만남과 벌어질 일들에 대한 더 큰 관심이 있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개인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예측했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적중했다.

누군가가 다가와 나를 알려고 들 때 드는 적대감이 있다.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자면 그렇다. 별안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외부인의 다가움에 집에 없는 척 몸을 숨기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나로써, 지역에 어떻게 개입하고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궁리하기보단 지극히 나의 관점에서 나의 기능과 쓸모 측면에서 사람들이 반겨할 만 한 것을 펼치려 했다. 그리하여 찾아가는 방식보단 찾아오게 하는 것이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 (단, 찾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못 찾아가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미용 또는 이발, '두발 정리'라는 대다수의 공통 관심사를 볼모로 하여 자발적 참여와 만남이 성사되어지고, 만남 이래 두발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온도를 확인하고 다시 각자의 일상공간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염두한 것이다.

일시적인 이발소 <영호름> 안에 상주하는 기간 동안 떠오르는 몇 장면이 있다. 동네 안을 무리지어 다니며 뛰노는 사내아이들의 모습과 호기심어린 눈으로 창밖에서 나를 들여다보던 모습이 떠오른다. 첫 어린이 손님이 되어준 초등학생 손님에게 이발사로서 서툴고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아쉬움이 남는다.

그 아이와 그 아이의 할아버지의 머리를, 어느 익명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장성한 아들의 머리를, 또 다른 익명의 아들과 그 아들의 어머니의 머리를, 한번 방문한 이웃의 가까운 이웃의 방문과 그 이웃의 절친 이웃의 머리를 이발해주었다. 이는 내가 아는 전통적인 이·미용실의 한 모델 또는 원형에 대한 체험판(데모판) 경험이면서, 동시에 이발소(문화플랫폼) 개업을 꿈꾸고 선망하는 내게 영감을 준 활동이었다.

이·미용이 예술로 받아들여지든 그저 기술 또는 기술 이하의 것으로 평가절하되어 받아들여지든 관심 없이 내가 행한 미술활동 안에서 달성한 소기의 목적인 보람과 기여라는 측면에서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좀 더 따를 생각이다. (일련의 상기 계획에 붙인 이름 <순수이용미술>의 개념 하에.)



일시적 이발소-영호름 설치 과정\_ Barber Pole 설치



영호름 퍼포먼스 풍경



영호름 전시공간에 설치된 수건



영호를 전시풍경



영호는 최근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용사국가자격증과 이용사면허증을 취득하여 이발소 <영호를>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목요일의 춤 워크샵 풍경

맺음 상회 운영 파트너 | 구오이

생생한 참여자 | 이철구, 오경자, 김순금, 고중주, 이정란

미군부대와 기지촌, 군사도시의 명암, 의정부의 경제활동... 요즘 사람들의 일상에서 근현대사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이슈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다큐에서조차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면 조금은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어버린다. 나 역시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 주식, NFT, 그리고 예술의 가치와 나의 춤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일인이다. 문화도시 의정부, 지방활동가, 문화재단 기획학교 지역과정, 거점 공간...

그러던 내가 2021년 문화도시를 알게 되었고, 지역활동가로서 나의 무용을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던 중에 뺨뼌을 만나게 되었다. 뺨뼌은 아직도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간이 멈춰버린 작은 마을이었다. 의정부에 전입한지 5년차인 나는 의정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다. 이런 내가 뺨뼌에서의 무엇을 내 작품에 담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어려웠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럴 순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나는 생생 2021에 참여했었고 현재 그로 인해 많은 피드백과 가능성을 안고 있다. 단지 그 과정 속에

서 처음 생각보다 훨씬 더 한계와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기에 '목요일의 춤'은 점점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미궁에서 나를 출구를 찾아 나오려 했지만, 미궁 자체를 부정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이다. 이 글은 '목요일의 춤'에 대한 리뷰이기도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뺨뼌 속 경험담이라고 보는 편이 좀 더 편할 것 같다. 그리고 이 글은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목요일마다 뺨뼌 어른신들과의 춤만남 이야기, 그리고 공연과 전시로 이어진 어른신들과 나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목요일의 춤'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뺨뼌의 기획작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이야기하고자한다.

뺨뼌 어른신들과 함께 한 목요일의 춤 만남

뺨뼌이라는 마을을 알게 된 계기는 의정부 문화재단 기획학교 지역과정을 이수하던 과정에서였다. 그래서 뺨뼌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 - 뺨뼌의 위치와 마을의 스토리 및 주민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책이나 인터넷의 기사를 통해 먼저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내게 뺨뼌과 미군부대에 대한 등가적 프레임과 편견을 심어주었다고 판단한다.

'생생 2021'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뺨뼌의 대한 나의 어쭙잡은 편견의 시선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주민 한명 한명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와 삶의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한 춤 만남을 시작하였다.

만남은 시작부터 예상 밖의 상황을 만들었다. 뺨뼌의 어른신들은 타지역의 같은 연배의 어른신들에 비해 체력 및 근력의 상태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춤 움직임을 통한 워크샵이 불가능하다 여겨졌고, 해서 근육이나 체력 보다는 감각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 판단되었다. 가장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보다도 더 경직된 분위기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춤을 기대하는 느낌이었다. 첫날의 만남은 답답함으로 끝나고,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정처없는 생각의 갈래로 인해 머리와 가슴이 혼란스러웠다. 결국 나는 이름(정체성)과 음식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감각을 되살리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두 번째 만남부터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위주로 움직이면서 한편으로는 음식에 대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과 그 시절의 추억, 그리고 그 시절의 주변 인물들... 지나갔지만 참 좋았던 시절. 이 때부터 어른신들의 개인사가 수다처럼 이어지고 우리의 만남은 활기를 가지기 시작했다.

목요일마다 만났던 우리의 춤 시간은 춤을 통한 스트레칭 및 근력의 강화 운동 시간이기도 했고, 또한 코로나로 음식을 나눠 먹을 순 없었지만 음식으로 인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였다.

'목요일의 춤' 공연과 전시로 이어진 뺨뼌 어른신들과 나와의 관계

만남의 기간 동안 나는 줄곧 어른신들의 신체를 강화시키고, 어른신들의 감각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었다. 하지만 마지막 만남이 끝나고 전시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또 한차례 변하게 되었다. 만남의 기간 동안 나는 내가 어른신들께 지나간 시간을 거슬러 좋은 기억을 전해 드리는 시간이라 여겼고 거기에 충실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른신들이 내게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감정을 충실하게 받아들였다.

사실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무대 위에서의 춤은 더 이상 추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목요일의 춤'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몸 상태에 충분히 감사하게 되었고, 더불어 어른신들의 움직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무대를 버리고 싶지

는 않았다. 그래서 다시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랐고, 결국 이 무대와 관객들을 통해서 또 한번 힘을 받았다.

나는 이 '목요일의 춤'을 통해서 현재의 나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을 관객과 함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은 뺨뼌의 어른신들이 주신거다.

'목요일의 춤'으로 느낀 점과 앞으로의 기대

처음 뺨뼌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은 곳은 책과 인터넷 기사들이었다. 하지만 뺨뼌 어른신들과 만남을 가진 이후로는 나에게 뺨뼌이 가진 미군기지와의 히스토리가 전혀 와 닿지 않았다. 그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어른신들 몸이 편찮으시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하다.

이렇게 뺨뼌의 어른신들은 현재를 살고 계시지만, 뺨뼌마을의 이미지는 한국의 근현대 시기의 마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나는 '목요일의 춤' 전시 기간 중 우연히 윤지영작가님과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공연을 위한 춤을 마을에서 추게 되었다. 윤지영작가님이 이 춤을 촬영해 주셨고, 이 영상은 나에게 목요일의 춤을 완성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황금과 같은 작업을 해 주신 윤지영작가님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어른신들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삶의 현상이 고스란히 담긴 이 거리와 집들을 배경으로 어른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한 나의 춤이 매칭되자 비로소 가장 멋진 배경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그날의 너무나 따스함을 머금은 겨울 햇살이 영상의 마무리를 장식하였다.

개인적으로 뺨뼌마을은 의정부가 더 이상 잃으면 안 되는 의정부만의 과거 정체성의 흔적이라고 본다. 예비 문화도시 의정부는 이 흔적이 더 사라지기 전에 뺨뼌이 담고 있는 이 흔적을 구석구석 아카이빙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흔적을 살고 계시는 어른신들과 주민들에게 아카이빙의 소스를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2022년도 많은 멋진 기획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특히 의정부는 문화와 역사의 거점으로서의 뺨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실행 가능한 기획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김현주 작가님과 조광희 작가님의 뺨뼌보관소는 뺨뼌마을의 문화지킴이로서 마을 주민들과 이어지는 훌륭한 거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달랑 몇 달 가서 춤추고 온 나로서는 그 대단함에 고개 숙여 박수를 치는 중이다.



목요일의 춤 워크숍 풍경



목요일의 춤\_이순주님의 공연



목요일의 춤 전시 풍경



이순주는 몸으로 소통하는 춤 작가입니다. 주로 춤으로 관계를 맺거나 소통의 부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생생 2021에서는 춤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몸짓을 이해하며 교감하는 이순주의 춤짓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상반죽 전시 풍경

**생생한 참여자** | 이순애, Lam, 정옥향, 김춘분, 이철구, 이필선, 서정숙, 이승주, 황효빈, 최찬영, 장서울, 장보영, 황재영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냈던 시간을 회상하며 &유대인 포로들이 수용소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얼굴이 밝게 빛났고, 수용소에서 추위와 고된 노동의 지친 육체를 일으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quot;고 증언한다. 위베르 망시옹과 스테파니 벨랑제는 그들의 저서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에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뿐이라고 했다.

‘먹고 살기 바빠 아름다움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둘 수 없다’는 뻬뻬에서 만난 어떤 주민의 이야기가 귓가에 울린다. 생계의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이웃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일까. 뻬뻬에서 예술은 쓸모 있을까.

반죽은 본래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이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쓸모도 없는 반죽을 만들고 있다. 뻬뻬의 풀, 열매, 꽃들을 채집하고 점토와 주물러 반죽을 마음에 맞게 빚는다.

주민분들과 함께 효용도 효율도 없는 이 무상(無念)한 반

죽을 주무르다가 혹시 감각하는 기쁨이나 아름답게 하는 행위에 대해, 뻬뻬에서 예술의 쓸모에 대해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 목표가 달성되어야만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본의 논리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토요일에 뻬뻬 보관소에서 워크샵을 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재료를 가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남과 활동을 가졌다. 학생들의 무상반죽 작품은 간식 주머니로 구입하였고, 어르신들의 작품은 단감 한 봉지로 구입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작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다. 정옥향, 김춘분 어르신과는 작업 후에 함께 김치 부침개를 붙여 먹고 믹스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Lam은 반죽을 만들며 전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뻬뻬보관소에서 워크샵을 진행할 때 마을 주민분들께서 떡, 직접 키우고 볶은 땅콩, 음료 등을 가져다 주셨다. 작업에 참여할지 망설이시던 어르신들도 일단 반죽을 시작하시면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드셨다. 학생들은 독특한 반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거나 다작을 하였으며, 서로의 것을 비교하여 즐기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다. 적



무상반죽 워크숍 풍경

극적인 젊은 동네분들은 여러개의 작품들을 만드셔서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뻬뻬마을 주민분들의 작품을 잉크젯으로 프린트하여 뻬뻬보관소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하고 작업과정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함께 설치하였다.

전시 기간에 방문하신 어르신들은 자신의 작품이 생각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언덕 위에 있는 뻬뻬보관소까지 오시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입구 게시판에 무상반죽 작품을 프린트하여 공유하였다.

**생생 프로젝트를 마치며**

생계의 문제는 인간에게 언제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데 무엇이 눈에 들리고 귀에 들릴까. 그러나 완전히, 혹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기나긴 생존의 투쟁 앞에서 인간의 영혼은 쉼이 필요하고 기쁨, 위로, 빵을 넘은 다른 의미를 찾게 된다. 물리적인 쓸모는 없으나 정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붙여 넣어 살아갈 의지와 힘을 공급하여 주는 어떤 것.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사는 즐거움, 보람, 의미 같은 것 말이다.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작업, 예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의미 있는 것인가. 되

뇌이는 물음이 뻬뻬를 드나들며 더 생생하게 파동 한다. 무상반죽에 흥미를 가지고 달려와 준 승주, 효빈이 서울 이와 찬영이에게 감사하고,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주시는 장보영님, 황재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으로 작업에 참여해 주신 Lam께 감사드리고, 흔쾌히 자연물들을 고르고 정성들여 반죽을 함께하면서 즐거워해주신 이순애, 이필선, 서정숙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철구 어르신 열린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고 부침개와 커피로 행복한 추억 선물해주신 정옥향, 김춘분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판을 열어주신 김현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시 보면서 행복해해주신 동네 주민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무상반죽 워크숍 풍경



무상반죽 전시 풍경



윤지영은 자연과 삶 속에서 만나는 이미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이미지의 파동에 귀기울이는 드로잉과 회화, 사운드,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떨어진 꽃의 이미지에서 음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미지를 음원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품경제의 소유와 소비에 길들여진 입맛을 섬세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변화를 위한 중요한 단서로 생각하고 자연과 일상의 삶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였다. 2004년 영국 Nottingham에서 첫 번째 개인전 <Snail Series- Dal>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 등의 후원으로 안국동과 헤이리 등에서 5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고 2020년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과정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하고 있다.

## 우리동네 뜨개질방 '동글게 더 동글게'

프로젝트 기간      뜨개질 강사 | 송임숙  
2021.09.25. - 11.27.    동근 참여자 | 김순자, 김재순, 이정란, 윤순복, 장보영, 정순자, 황재영, 최덕주  
매주 토요일



동글게 더 동글게 워크샵 풍경

마을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이 부재한 뽕뽕마을의 주민들은 일상에서 취미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노인분들의 경우 무언가를 배우거나 문화생활을 하며 사시는 분들이 매우 드물고 마을에서 취미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부재하다.

지역 내 주민들이 뽕뽕보관소에서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무얼까 고민하던 중 주민들의 바람으로 뜨개질 강좌를 열게 되었다. 뽕뽕에서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 외에도 지역 연고가 있으신 의정부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됐다. 총 여덟 번의 만남 동안 참여자들과 커다란 책상을 가운데 두고 모여 앉아 코바느질 기초뜨기에 해당하는 티테이블 제작을 시작으로 모자, 가방 등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작하는 기쁨이 컸다. 참여자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점진적으로 시도해보고자 한 것은 소위 쓸모 있는 것을 제작하는 기쁨으로부터 참여자들이 익힌 뜨개질 기술을 공공작품제작으로 이행해 보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새로운 기쁨을 공유해보길 바랐다. 이 과정에서 송임숙 강사님의 적극적인 준비로 마을을 산책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작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동글게 더 동글게 참여자분들

정규 모임으로 진행된 마을 동아리를 운영하는 과정은 현지 주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을 내에서도 비교적 젊은 층에 해당하는 50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중년세대의 주민들은 주말에도 노인 요양 보호사활동이나 마트 점원, 식당 일 등을 하시느라 참여자체가 어렵거나 불규칙적이었다. 또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뜨개질 혹은 문화적 활동을 하는 모임이 여전히 낯설어서 선뜻 공간에 오시는 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또 2019년부터 인연을 맺은 이후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셨던 노인분들의 참여가 저조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민들 스스로 대면모임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도 컸지만 뽕뽕보관소가 높은 지대로 이전하게 되면서 가파른 언덕을 오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셨다.

2019년도 예술공간으로 활용되었던 키클럽 공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다. 전시와 예술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공존하기에는 뽕뽕보관소 공간이 협소하여 교육기간과 전시기간을 나누어 진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쉬운 상황속에서도 8주 동안 꾸준히 이어진 뜨개질방은 공간을 주민들의 알록달록한 이야기와 경험으로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도 섬세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여전히 공간이 낯설고 어렵게 느끼시는 주민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소한 활동이 지원되어야 함을 느낀다.

실들이 교차하며 연결고리를 만드는 뜨개질의 과정에서 긴 선이 천천히 면을 만들고 따뜻하고 알록달록한 덩어리 -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동글게 더 동글게' 모임이 마을 내 새로운 관계 맺기의 씨를 심는 시간으로 여겨졌다. 지난 해 심은 동아리 활동의 씨앗을 기억하며 참여하신 마을분들이 새 해 다시 모임을 통해 좀 더 튼튼한 관계의 새싹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2022.01.



'동글게 더 동글게' 워크샵 풍경

# 프로젝트 리뷰



참여작가 구매 2021.09.03.

**2021.08.~09.03.**

참여작가 구매 및 섭외완료

프로젝트 생생 참여작가 일대일 미팅, 미술작가 영호, 김윤하, 윤지영, 무용 안무가 이순주 섭외 완료

**09.25.**

1차 작가 워크숍

빼빼 마을 소개 및 프로젝트 생생 기획내용 소개작가별 작품소개, 마을 답사 활동

**10.07.**

2차 작가 워크숍

작가별 프로젝트 기획 내용 공유

**10.20~12**

프로젝트 [생생] 홍보

마을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대면 홍보. 워크숍 성격에 맞는 적합한 주민분들을 전화로 개별 안내하여 작가 매칭. 각 워크숍별 마을방송을 통해 참여 안내

**10.26.~11.16.**

생생워크숍 I - 화요일의 춤

총 4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이순주 작가와 주민이 만나 함께 추는 춤

**10.28.**

생생워크숍 II - 영호의 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원데이 퍼포먼스. 일시적 이발소가 된 빼빼보관소에서 영호 작가님의 이발과 주민의 이야기가 교환된다.

**10.30.**

생생워크숍 III 무상반죽

밀가루와 자연물을 반죽하며 '지금, 여기'를 감각하는 윤지영 작가님과 마을의 아이들의 '무상반죽'의 시간

**11.02.**

3차 작가 워크숍 - 중간공유회

네 명의 생생 작가들이 그간 진행한 프로젝트 과정을 공유. 프로젝트 별 전시 일정 및 진행 사항 논의

**11.23.~12.18.**

프로젝트 생생 전시 I '영호룸' \_영호

'영호룸' \_영호, '목요일의 춤' \_이순주, '맺음상회' \_김윤하, '무상반죽' \_윤지영  
4주 동안 네 개의 전시가 5일씩 순차적으로 빼빼보관소에서 진행됨

**12.06.**

맺음상회 '부침개 나눔' 이벤트

김윤하 작가의 '맺음상회'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부침개 나눔' 이벤트

**12.17.**

4차 작가 워크숍 - 최종 공유회

프로젝트 생생 라운드테이블: 그 간 진행된 예술활동을 참여작가, 주민, 관계자와 함께 공유하며 전체 프로젝트 마무리



2차 작가 워크숍\_프로젝트 기획내용 공유\_2021.10.07.



프로젝트 생생 워크숍 홍보 2021.10.25.



3차 작가 워크숍\_중간 공유회\_2021.11.02.



4차 작가 워크숍\_프로젝트 최종 공유회\_2021.12.17.





## 주민 에필로그

## 어디 사세요?

### 예술 마을 뺨벌에 살아요.

장보영 (마을 주민, 영양관리사, 40대)

28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여 살기 시작한 이곳 뺨벌은 택시기사님들만 아시는 마을이었다. 학습지 교사를 하던 내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어디사세요?’ 라고 물으면 ‘뺨벌 살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뺨벌은 신랑이 태어나 성장한 곳이기도 하지만 캠프스텐리 미군부대와 함께 형성된 기지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사세요?’ 라는 질문에 종종 나는 ‘청학리 가기 전’ 혹은 ‘의정부 교도소’ 바로 지나서 있다고 대답하곤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뺨벌에 살고 있다. 뚱뚱하고 커다란 흑인 미군이 집으로 가는 길목 언덕에 서 있기라도 하면 무서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금요일, 토요일이면 밤인데도 클럽간판 불빛 때문에 마을은 대낮 보다 더 환했고 아침 동틀 때까지도 음악소리로 시끄러웠던 동네. 뺨벌은 살고 싶지 않아 늘 이사 가고 싶었던 마을이다.

부대가 떠나고 난 뒤 방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보니 다른 나라의 낯선 이방인들이 뺨벌에 살기 시작했다. 이방인들은 원주민들에게 위험한 사람들이었기에 학원에서 돌아오는 딸아이를 대낮에도 혼자 걷게 둘 수가 없었다. 마을 초입에서 집까지 200m도 안 되는 짧은 길임에도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마을이라 딸아이가 혼자 귀가하게 둘 수는 없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늘 떠나고 싶었던 이 마을에 2019년 초 김현주, 조광희 미술작가님 두 분이 오셨다.

두 분은 마을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말조차 걸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주시고 마을에서 접하기 어려운 예술활동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2020년에는 무용선생님을 초대하여 요가 수업(‘뺨벌 - 몸짓’ 프로젝트\_2020)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주민분들의 그늘지고 어두운 얼굴과 표정들이 점점 밝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둡고 그늘진 마을에 올 해는 거리극과 국악공연, 다양한 전시를 통해 웅크리고 움직임이 없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과거 마을에 ‘뺨’이라는 잡초가 가득했고 그 풀을 묶어 소원을 빌던 놀이(‘소원을 부르는 뺨대’\_2020) 등 마을의 옛 이야기를 알려주시기도 했다. 또 밀납으로 담금초를 만들면서 한 번도 말 걸어 보지 못했던 어르신들과 수업(‘불을 밝혀보라’\_2020)을 하기도 했는데 웃음이 없으셨던 분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드리워지던 기억도 난다.

올 해 가을엔 무상반죽(‘무상반죽’\_프로젝트생생\_2021)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무심히 지나쳤던 풀, 열매, 꽃들을 점토와 반죽하여 만든 어르신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숨은 실버 작가들이 계셨네!’ 라고 속으로 감탄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또 뺨벌 이발소(‘영호룸’\_프로젝트생생\_2021)를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 머리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탤런트 뺨치는 숨은 인물로 바뀌어지는 마을을 보았다. 이발소로 변신했던 뺨벌 보관소에 다시 예쁜 작가(김윤하 작가)가 동네주민들과 예술과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김치전 이벤트를 벌인 기억도 생생하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마을주민들을 찾아 커다란 가방을 매고 양손 가득 미술 재료들을 들고 집집마다 어르신들 문 두드려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작품을 만드신 작가님(윤지영 작가)을 생각하면 쿵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뭉클해온다. 마을 전시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잊지 않으시고 크리스마스이브 산타처럼 오셔서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맘을 전하신 무용작가님(이순주 안무가)이 보고 싶다.

예술가분들은 마을에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예술을 통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뺨벌 마을이 읍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다. 작은 몸짓이 커다란 나비 효과가 되어 앞으로 뺨벌이 멀리서도 찾아 방문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 가득한 마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 뺨벌 보관소와의 만남

황재영 (마을 주민, 40대)

2019년 처음으로 김현주작가님과의 만남으로 뺨벌 보관소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느낌이었지만 작가님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뺨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점점 더 가까워 졌다.

가족이 뺨벌에 처음 이사 왔을 당시에는 미군들이 많았고 클럽의 음악소리로 ‘이런 곳이 있구나’ 놀라웠다. 점차 마을에 살면서 이웃 주민들을 이모,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워지면서 마을에 정이 깃들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뺨벌은 우리가족의 두 번째 보금자리가 된 것 같다.

뺨벌에서 예술가 선생님과 함께 한 활동들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우리 마을에도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계기와 기회들이 생겨났고,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좋았다.

특히 어르신들과 함께 요가(‘뺨벌 - 몸짓’ 프로젝트\_2020)를 배우면서 되는 동작과 안 되는 동작을 표현하는 동안 서로 웃으며 밝은 얼굴로 함께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또 밀랍초 만들기(‘불을 밝혀보라’ 2020), 케이크 만들기, 편백 배개 만들기 등 예술 활동(‘시 -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_2019)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돈독한 정과 답소를 나누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수업하는 날이 늘 기다려졌다. 집에서 혼자서 누워서 티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뺨벌보관소와의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었던 손뜨개질, 영호작가님의 이발소, 점토와 식물로 만드는 무상반죽, 고소한 부침개를 나누었던 뺨뺨상회 등 많은 주민들과 예술가분들이 만난 공간이 ‘뺨벌 보관소’다.

뺨뺨보관소에게 바램과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예전에도 우리 마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었다. 이름이 ‘뺨뺨 쪽방’이었는데 주민들과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뺨뺨 쪽방’이 머물던 건물의 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서 오래 계시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김현주, 조광희 작가님도 버티다가 떠나시겠지 했는데 벌써 3년차 마을에 계시니 감사한 마음이다.

이제는 뺨뺨 보관소에서 또 무엇을 할까, 또 우리 마을에 무슨 재밌는 일이 생길까하는 기대감이 생겨난다.



**[배벨보관소 - 삶 예술을 보관하다]**  
프로젝트 일지

## 3월



**03.16.**  
**<구. 뽕뽕보관소 이사준비>**  
 조광희, 김현주  
 2020년 한 해 동안 주민분들과 함께 하는 예술 공간 (구. 구제웃가게)을 건물주분이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이사 준비를 함



**<마을탐사 및 주민분들과 프로젝트 기획 회의>**  
 황재영, 장보영, 조광희, 김현주  
 장보영님덕에서 2021년 진행할 프로젝트 내용 논의. 마을 내 새로운 거점 공간을 찾기 위해 힐사이드 방문 및 공간 체크



**03.27.**  
**<뽕뽕보관소 공간 정리>**  
 조광희, 김현주  
 공간 내 보관하고 있던 주민분들의 물건과 전시물들을 정리 및 공간 청소. 지역을 아예 떠나는 줄 알고 찾아오신 주민분들께 공간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나눔

## 4월



**04.13.**  
**<힐사이드 공간 체크>**  
 조광희, 김현주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적합한지 내부 공간 세부 점검 계약하게 될 경우 건물주분께서 수선해주시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



**04.17.**  
**<힐사이드 방문>**  
 조광희, 김현주, 김연규  
 프로젝트 거점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새로운 공간을 얻기 위해 마을 내 미군전용바로 활용되었던 힐 사이드 방문 및 건물 사장님 미팅. 화장실, 부엌 등 공간 세부 점검.



**04.18.**  
**<뽕뽕주민분들과 프로젝트 기획회의>**  
 조광희, 김현주, 황재영, 장보영, 장숙자  
 2021년 프로젝트 기획내용 주민분들과 공유 및 세부활동 내용에 대한 주민분들 의견을 여쭙보고 프로젝트 관련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



**04.25.**  
**<힐사이드 아카이브>**  
 김현주, 조광희, 김연규  
 힐사이드 내부 수선해야할 부분 체크 및 건물주 김연규사장님 인터뷰 진행. 공간에 붙어있는 지폐나 메모 등 사진 기록



**<망가진 오토바이를 분해하시는 박광길 할아버지>**  
 동네에 재활용 물건들을 정리해주는 박광길 할아버지. 주민 한 분께 망가진 오토바이를 받으신 후 분해 중입니다.



**04.26.**  
**<마을 아카이브>**  
 김현주, 조광희  
 해가 바뀌면서 마을 내 몇몇 건물이 철거되기 시작. 종종 제실 건축 본격화됨.

## 5월



**05.01.**  
**<뽕뽕은 공공공 - 1차 작가 워크숍>**  
 김현주, 조광희, 오로민경, 전병철, 장영원, 권석린, 김이박, 황재영  
 주민 황재영님의 안내로 마을초입에 위치한 두레방을 시작으로 뽕뽕 계곡까지 마을 탐사. 마을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등에 대해 나눔. 이후 프로젝트 기획관련 내용 공유



**05.04.**  
**<프로젝트 자문 \_윤현옥 선생님 미팅>**  
 윤현옥, 김현주, 조광희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앞서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 방향성 점검. 거점 예술공간이 주민주체의 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제한된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음. '화장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05.13.**  
**<마을 내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찾기>**  
 김현주, 조광희



**<방경지님, 장보영님 방문>**  
 방경지 기획자님의 공간 방문. 시원한 음료와 간식으로  
 공간 응원을 해 주셨다. 장영원 작가님 주민 인터뷰 작업을  
 위해 마을 주민이신 장보영님 소개



**05.22.**  
**<뽕밭은 공공공 - 2차 작가 워크숍>**  
 김현주, 조광희, 오로민경, 전병철, 장영원, 권석린, 김이박,  
 임창재  
 약 한 시간 동안 각자 마을을 탐사하며 사물을 수집.  
 마을 내 놀이터 공간에 모여 각자 수집한 사물들을  
 늘어뜨려 놓음. 주어진 사물의 의미와 무의미함들을  
 연결하여 즉흥 설치함. 가벼운 산책과 수집, 조형 활동을  
 통한 느슨한 연대 맺기



**05.28.**  
**<뽕밭은 공공공 - 개소식 공연 준비>**  
 권석린, 정대원, 더툰, 조광희, 김현주  
 개소식 거리극 '사자가 온다' 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 답사

## 6월



**06.02.**  
**<마을 아카이브>**  
 김현주, 조광희, 박광길, 김순자  
 마을 탐사 및 마을 아카이브를 위해 박광길님, 김순자님  
 인터뷰  
 제비들이 동네 곳곳에 둥지를 틀고 새끼 제비를 낳음.  
 제비가 처마 아래 집을 짓게 되면 제비똥으로 집 앞이  
 지저분해진다고 전함. 주민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비집을  
 부수고 제비는 다시 와서 집을 짓기 위한 애씀이 반복 됨



**06.03.**  
**<친애하는 나의 오늘 프로젝트 진행>**  
 김현주, 조광희, 성현자, 고중주  
 주민분들께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나누어 드림. 일대일로  
 방문하여 카메라 조작법과 활동 방법 안내



**06.04.**  
**<거점공간회의>**  
 놀다, 가을, 김현주  
 신곡동, 흥선동, 뽕밭마을 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점  
 공간 활동 과정 공유



**06.05.**  
**<지역문화예술 거점공간 답사>**  
 김현주, 조광희, 류근수, 고경표, 오석근  
 인천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빙고 방문. 건축가 류근수님  
 선생님을 통해 지역 기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및 예술가  
 로 활동하고 계신 오석근 작가님과 고경표큐레이터님 만남.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걷고 듣고>,  
 <적산가옥>. <신흥동-일곱 주택>프로젝트 등 지역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는 지역의 문화들을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담론화 함. 지역문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하게 한  
 다양한 프로젝트예술활동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예술활동의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06.06.**  
**빼빼로보관소 1차 리모델링**  
 장영원, 최정원, 조광희, 김현주  
 공간에 필요한 자재 1차 구매 및 공간에 불필요한 것들  
 철거 및 정리



**06.09.**  
**마을 아카이브 - 주민인터뷰**  
 조광희, 김현주  
 놀이터에서 뒷밭을 가꾸던 주민분이 집 앞에서 식물을 가꾸  
 게 된 사연을 듣게 됨.



**06.11.**  
**<오로민경 작가 미팅>**  
 오로민경, 김현주  
 어떤 연결을 위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



**06.15.**  
**<빼빼로 공공공 주민 워크숍 홍보>**  
 김현주, 조광희  
 빼빼로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너무 귀한 일  
 주민분들은 여건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 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사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 안타깝다. 어깨동무 할 수 있는 동네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아이 마음을 상상하니 쓸쓸해진다.



**06.15.**  
**<‘친애하는 나의 오늘’ 주민 미팅>**  
 주민분들이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없으신지  
 참여하시는 분들을 만나 진행 과정을 점검



**06.19.**  
**<빼빼로보관소 1차 공간수선 진행과정>**  
 공간 수선이 한 창인 점심에 황재영님과 효빈이가  
 간식과 꽃 선물을 해 주셨다. 너무 아름다웠다.  
 바닥 예폭시 작업을 하는 걸로 일차 수선이 마무리 되었다.  
 공간이 좁아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는 공간 집기를 밖에  
 내 놓을 수 밖에 없다. 책상과 냉장고를 기증 받음.



**06.22.**  
**<마을 아카이브 - 고중주님 댁 방문>**  
 심복순님 도움으로 가족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마을 내 풍경이 담긴 사진이 몇 장 발견 되어 과거 주민분들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친애하는 나의 오늘’ 참여자 미팅>**  
 김현주, 조광희  
 조춘자, 황용섭, 고중주님댁에 방문하여 촬영 과정을 점검.



**06.24.**  
**<마을 아카이브>**  
 김현주, 조광희, 장보영, 조춘자  
 조춘자님 가게와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조춘자님 그림을  
 감상. 코로나 이전까지는 다른 지역 내 복지관에서 등양화,  
 유화 등을 취미로 배우셨음



**06.29.**  
 <공간 내 개수대 설치>  
 김현주, 조광희  
 공간 개소식이 7월 10일인데 바닥 에폭시가 마르지 않아 점검 필요



**07.03.**  
 <‘으르렁’ 뽀뽀 - 사자가 돌아온다>  
 권석린, 정대원  
 시민참여 거리극에 사용될 사자탈 제작과정 소식



**07.03.**  
 <‘뽀뽀’는 공공공 전시 준비>  
 오로민경, 김현주, 조광희  
 오로민경 작가 작품 도착.  
 공간 바닥이 기울어지고 벽면도 비정형적임.  
 웬만한 기물은 그냥 놓질 못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함.

**7월**



**07.01.**  
 <입간판 제작>  
 조광희, 정명국  
 입간판 제작을 위해 정명국 작가님 작업실에서 도움을 받아 제작 완성



**07.05.**  
 <‘뽀뽀’는 공공공’ 지역 아카이브 사진 설치>  
 김현주, 조광희  
 공간 내 벽면에 아카이브한 1950년대부터 2천년대에 이르기까지 뽀뽀의 풍경이 담긴 사진 설치



**07.06.**  
 <정남수 할아버지의 쉼터>  
 1960년대 초 마을에 처음 정남수 할아버지가 오셨을 당시 마을 초입에 있는 은행나무 키가 할아버지 키와 비슷했다고 한다. 나무 아래가 유일한 할아버지의 쉼터 공간인데 주민들이 냉장고, 오토바이, 자전거, 선반 등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갖다 버리면서 공간이 지저분해졌다. 의정부시청에 문의에 문의를 거듭해서 물건들을 치웠는데 다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반복된다.



**07.07.**  
 <거리극 리허설 & 전시작품 설치>  
 김현주, 조광희, 권석린  
 전시 설치 진행



**07.08.**  
 <뽀뽀, 살랑 모빌 제작 워크숍>  
 오로민경, 김현주, 황재영, 김순자, 고종주



**07.09.**  
 <가면만들기 워크숍 & 거리극 리허설>  
 권석린, 김현주, 조광희, 최성인, 황재영, 디나라, 조은정, 눈이 예쁜 아이, 오수환  
 거리극에서 쓸 가면을 시민들과 제작하고 거리극 당일 내용 공유



**07.10.**  
 <뽀뽀보관소 개소식 행사 & 뽀뽀는 공공공 전시 오픈>  
 코로나로 개소식 행사를 본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으나 다행히 참여한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음



**07.17.**  
 <뽀뽀보관소 전시종료>  
 전시기간 동안 뽀뽀 지역과 전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음. 특히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



**07.24.**  
**<‘친애하는 나의 오늘’ 주민 사진전 준비>**  
 ‘친애하는 나의 오늘’ 주민 전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만나 필름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한 장 한 장 함께 감상하며 사진에 담긴 이야기들을 나눔.



**07.27.**  
**<친애하는 나의 오늘 전시> 진행**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낯선인지 새로운 분들을 공간에서 뵙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그럼에도 전시된 주민들의 사진을 보고 50년 넘게 마을에서 살아오신 주민분이 매일 접하는 동네 풍경인데 전혀 알아보지 못함.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쁜 곳이 있어?’ 라는 식의 주민분들의 반응이 흥미로움



**<에어컨 설치>**  
 의정부 문화재단의 도움으로 2021년 12월까지 에어컨 임차를 하게 됨.



**07.29.**  
**<황재영님 생일 파티>**  
 혼자 사시는 주민분들이 많아 매 달 한 달에 한 번 주민분들의 생일잔치를 소소하게나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던 것을 프로젝트를 연결해보고자 했음.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민한 상황이라 지속할 수는 없었지만 이후 꼭 실천해볼 만한 공동체 프로젝트



**07.29.**  
**<평론가 고동연 선생님 미팅>**  
 조광희, 김현주, 고동연  
 뽕뽕마을 산책 및 동네에 유일한 오복식당에서 점심식사. 프로젝트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



**07.31.**  
**<친애하는 나의 오늘 - 전시 종료>**  
 전시공간 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호박이 인기가 많았음. 장보영님이 선물해주신 호박이 주민분들께 인기가 많았음. 종종 테이블 위에 놓인 호박을 들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았음. 개소식 이후 연말이 진행된 프로젝트로 피로도가 높았으나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의 응원으로 감사하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음.



**08.16.**  
**<의정부 시청에서 뽕뽕보관소 공간 촬영 및 인터뷰>**  
 의정부 시청에서 뽕뽕보관소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촬영 진행. 이후 연락이 없음. 종종 이런 일이 되풀이 됨.



**08.16.**  
**<뽕뽕보관소 2차리모델링 - 왕희관 사장님 미팅>**  
 하반기 프로젝트 지원을 받게 되어 공간 내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을 수선할 수 있게 됨. 1차 리모델링 과정에서 화장실을 맡아 수선해주셨던 마을 주민 왕희관 사장님과 수선 내용 논의

## 8월



**08.10.**  
**<VR 아카이브 방문>**  
 조광희, 김현주, 박영재, 유상호  
 고사리협동조합 박영재 선생님 뽕뽕보관소 방문. VR을 활용해서 지역 아카이브 하신 자료를 소개 받았으며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 받음.



**08.31.**  
**<뽕뽕보관소 방역>**

# 9월



**09.04.**  
**<공동체예술프로젝트 '생생' 참여작가 선정> 미팅**  
 김현주, 조광희, 김윤하, 윤지영, 서영호, 이순주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생생'에 참여할 네 명의 작가님을 만나 참여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과 관계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마을 및 프로젝트의 방향성 소개 함.



**09.10.**  
**<마을아카이브>**  
 197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미군이 지은 집에 살고 계신 주민 맥 방문. 노인분들 대다수가 아쉽게도 사진이 아무 쓸모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버리신 분들이 많음.  
 1960년대 미군부대에서 일하신 분들 중 마을에서도 비교적 유복한 삶을 사신 기억들을 사진과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음.



**09.05.**  
**<뽕뽕보관소 2차 공간수선 견적>**  
 김현주, 조광희, 스마트 인테리어 왕희관 사장님  
 시민참여 거리극 사자탈 제작 상반기에 예산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창문 교체, 원도우갤러리, 공간 내 선반 제작 두 개 등 관련 수선비를 지역주민이신 왕희관 사장님께 문의 드림. 공간 내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하반기 프로젝트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진행 일정 검토



**09.11.**  
**<기존 창문 수선 및 창문교체 준비>**



**09.12.**  
**<원도우 갤러리 제작 논의>**  
 김현주, 조광희, 왕희관, 황용석  
 뽕뽕보관소 창문교체 완료에 이어 원도우 갤러리 제작 및 내부 선반 크기 및 두께 논의



**09.14.**  
**<우리동네 뜨개질방 '둥글게 더 둥글게' 홍보>**



**09.24.**  
**<원도우갤러리 제작 및 2차 공간 수선 완료>**  
 김현주, 조광희, 왕희관



**09.25.**  
**<뜨개질방 1차 활동 시작>**  
 송임숙, 김현주, 이순자, 황재영, 장보영  
 총 여덟분이 신청을 하셨고 첫 날은 마을 주민 네 분이 참여하여 기초 코바느질 뜨기를 배움



**<[프로젝트 생생] 1차 작가워크숍&마을탐방>**  
 김현주, 조광희, 김윤하, 윤지영, 서영호, 이순주  
 참여작가별 작품 프레젠테이션 및 마을 탐방 진행

# 10월



**10.07.**  
**<[프로젝트 생생] 2차 작가워크숍>**  
 김현주, 조광희, 김윤하, 윤지영, 서영호, 이순주, 백정희, 이시아, 유상호, 김진희  
 참여작가별 프로젝트 기획안 발표 진행.  
 프로젝트 홍보 및 주민매칭을 위해 마을 답사를 하고 주민들과 인사 나눔



**10.10.**  
**<주민분들과 티타임 -공간 홍보>**  
 일요일 아침 물 사용량 검침을 위해 방문하신 박영태님과 함께 동네 주민분들 몇 분을 모시고 티타임. 커피보다 한차를 좋아하심.  
 뽕뽕은 현재도 수도가 들어오질 않아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량기를 확인 후 물세를 내야 함. 물세는 반드시 마을 초입에 위치한 농협에 직접 방문을 통해 낼 수 있고 온라인 송금은 안 됨.



**10.19.**  
**<간판제작 관련 미팅> 김현주, 조광희, 박경귀**  
 뽕뽕보관소 간판 제작을 위해 송산광고 박경귀 사장님 미팅 및 견적문의.  
 상반기 프로젝트 자문을 해주신 윤현옥 선생님의 두 번째 방문. 화장실 공간 체크 하신 후 '잘 했네'라고 칭찬해주심.



**10.25.**  
**<간판제작완료>**  
 뽕뽕보관소 간판 제작 완료함. 타이머를 설치하여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간판불이 들어올 수 있게 설치 함.



**10.25.**  
**<[프로젝트 생생] 워크숍 홍보>**  
 김현주, 조광희, 서영호, 이순주  
 프로젝트 생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민 참여 워크숍인 '무상반죽', '영호의 영호룸', '목요일의 춤'을 홍보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분들께 직접 안내.



**10.26.**  
**<VR마을아카이브 준비 & 마을탐사>**  
 김현주, 조광희, 신윤호 선생님  
 VR아카이브를 협력해주실 신윤호 선생님과 함께 마을을 답사 하며 아카이브할 내용에 대해 안내.  
 VR아카이브 진행 및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이야기 나눔.  
 예산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마을 길 및 5개 거점 내부공간 위치 파악. 촬영일정 계획.



**10.26.**  
**<공간 정비>**  
 김현주, 조광희  
 프로젝트 생생 워크숍 및 전시진행을 위해 기존 마을과 관계한 아카이브물을 정리하고 위치를 바꿈.



**<[프로젝트 생생] 워크숍-목요일의 춤>**  
 이순주, 구오이 (GUO YI), 김현주, 조광희, 오경자, 김순금, 이철규, 고중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으로 80대 주민 네 분이 참여. 참여자들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섬세하게 첫 활동의 문을 었.



**<주민 인터뷰>**  
 김현주, 조광희  
 왕학검 사장님과 함께 송산반점을 운영해오신 여사장님과 인터뷰 진행. 종종 땅에 건물을 짓고 미군들을 상대로 중국집을 운영해오시다가 미군평택이전과 함께 토지임료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면서 마트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현재 삶과 관계한 이야기 나눔.



10.27.

<[프로젝트 생생] 워크숍-영호를 준비>

김현주, 조광희, 영호

원데이 퍼포먼스로 진행되는 영호작가님의 '영호를' 준비. 일시적 이발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발소 의자 및 디스플레이 진행함. 의정부 녹양동에 위치한 현대이발소 서기운 사장님께서 이발의자 무료 지원해주심. 아이들이 종종 공간에 놀러 온다. 가장 큰 관심을 가져줘서 늘 감사. 해가 질 무렵 꽃을 들고 나타난 성현자님.



<000님 인터뷰>

김현주, 조광희, 000

빼빼에 이사 오신지는 약 3년 정도로 남편분과 두 분이 살고 계심. 배달 일을 하던 아드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아드님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슬픔에 잠겨 살고 계심.



10.28.

<[프로젝트 생생] 퍼포먼스-영호를 진행>

영호, 김현주, 조광희, 왕학검, 황해인, 오경자, 장보영, 이철구, 최창석, 왕희관, 고중주, 이필선, 박기호, 박광길, 유상호님 등 총 14인

일시적 이발소가 된 공간에 다양한 주민분들이 머리를 자르시기 위해 방문. 미군을 상대로 모자 장사를 하시는 분. 삼년 전 혼자 지낼 곳을 찾다가 마을에 들어오게 된 분 등 다양한 주민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이발소가 없는 마을에서 머리를 자를 수 있게 되어 모두들 좋아하심. 고마움에 주민분들이 녹차 티백이나 과장 등 소소한 선물을 가져다 주심.



10.29.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박경아님, 진은정님 방문>

양말목으로 방석 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주시고 양말목 재료를 지원해 주심



10.30.

<[프로젝트 생생] 워크숍-무상반죽>

윤지영, 윤수미, 김현주, 장보영, 황재영, 서울, 승주, 효빈, 찬영 7세부터 16세 중학생까지 마을 내 아이들 네 명과 주민 두 분이 함께 참여함. 윤지영 작가님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채집하고 채집된 식물과 점토를 반죽하여 각자 고유의 무상반죽 조형물을 제작해냄.



10.30.

<주민인터뷰>

김현주, 이정란, 정옥향

주민분께 식사 대접을 받는 것 만큼 큰 선물이 없다. 주민분 댁에서 밥을 먹는 순간 프로젝트 성공 확률 100프로 상승

## 11월



11.02.

<아카이브예술 자문>

김장언, 김현주, 조광희

빼빼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해드리고 VR아카이브 관련 작업에 대한 자문 요청드리.



<[프로젝트 생생] 전시-'영호를' 홍보>

김현주, 조광희, 영호

프로젝트 생생 첫 번째 전시 '영호를'을 앞두고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 진행



<[프로젝트 생생] 3차 작가워크숍-중간공유회>

김현주, 조광희, 김윤하, 윤지영, 서영호, 이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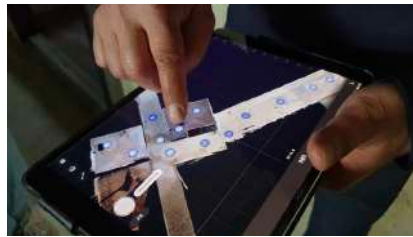
10월 한 달간 마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 및 진행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나눔. 이어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전시기획 내용 공유.



**11.06.**  
 의정부 사물놀이단체 '살판'의 공연  
 따뜻한 가을 날씨 신나는 국악 공연이 주민분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박복순님께서 애완닭을 데리고 나오셨다.



**11.07.**  
 <동태트럭 방문>  
 마을 가까이에 시장이나 마트가 없다보니 주민들은 장을  
 보려면 매번 버스를 타고 만가대나 의정부 시장까지 가야 한다.  
 마을에 생선을 파는 트럭이 방문하면 인기 만점이다.



**11.10.**  
 <빼빼-시공을 몽타쥬하다>VR아카이브- 키클럽 내부공간>  
 신윤호, 김현주, 조광희  
 마을 내 5개 공간 중 키클럽 내부 공간을 아카이브 하기 위해  
 사전 답사 및 공간 섭외 진행. 약 8시간 정도 키클럽 내부에  
 머물며 1층부터 3층까지 공간 아카이브 완료. 기존 공간들이  
 창고와 같은 다른 용도로 변하면서 본래 공간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고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움.  
 기록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는 과정까지가 매우 어려웠음.



**11.11.**  
 <아카이브 작업 - 낙서>  
 김현주  
 마을 이 곳 저곳에 남겨진 미군들의 낙서를 사진 기록



**11.20.**  
 [빼빼-시공을몽타쥬하다]VR아카이브- 마을 길  
 신윤호, 김현주, 조광희  
 마을 내 큰 길을 중심으로 VR아카이브 진행



**11.23.**  
 <[프로젝트 생생] '영호룸'-영호 전시>  
 11.23~11.27까지 5일간 진행됨. 빼빼보관소 공간이 일시적  
 이발소 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민분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이발 노동이 교환됨



**11.29.**  
 <빼빼보관소 공간수선 3차 사전 회의>  
 정명국, 김현주, 조광희  
 윈도우갤러리 조명설치 및 공간페인트칠 등 공간 수선을 위해  
 정명국 미술작가와 사전 회의 진행



**11.30.**  
 <[프로젝트 생생] '목요일의 춤'- 이순주 전시>  
 11.30~12.4까지 5일간 진행됨.

## 12월



**12.06.**  
 <[프로젝트 생생] '맺음상회' 부침개 이벤트>  
 김윤하, 오수진, 김현주, 장보영, 황재영 외 빼빼마을 주민들  
 전시 홍보를 위해 오픈 이벤트로 공간에서 전을 부치고  
 주민들과 나누는 행사 진행



**12.07.**  
 <[프로젝트 생생] '맺음상회' - 김윤하 전시>  
 12.07~12.11까지 5일간 전시 진행



**12.14.**  
 <[프로젝트 생생] '무상반죽' - 윤지영 전시>  
 12.14~12.18까지 5일간 전시 진행



12.15.  
[뻬뻬-시공을 몽타주하다]VR아카이브-  
신윤호, 김현주, 조광희  
송산반점, 고산동 교회, 이강수님댁 내부 공간 VR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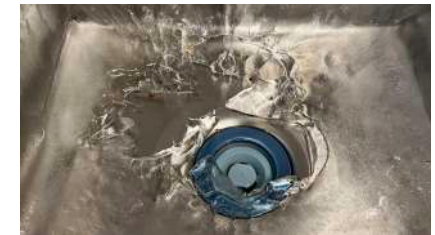


12.17.  
<프로젝트 생생 - 최종 보고회>  
김현주, 조광희, 영호, 윤지영, 김윤하, 이순주, 장보영, 백정희,  
이사야, 유상호  
하반기 동안 프로젝트 기간 내내 주민분들과 다양한 예술적  
교감을 해내신 네 분 예술가 분들의 진행 과정을 최종 공유하며  
생생 프로젝트와 함께 하반기 프로젝트를 일단락 함.

## 2022년 1월



01.10.  
<뻬뻬보관소 전기 차단기 수선>  
김연규, 김현주  
정산 마무리 후 마을 방문.  
온풍기가 작동 중 계속 꺼지게 되어 건물주분께 도움 요청을  
드렸는데 전기 차단기를 수선해 주심. 바닥을 예쁜 페인트로  
칠했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조언해주심.



01.25.  
<2022년 뻬뻬프로젝트 기획회의>  
백정희, 이사야, 조광희, 김현주  
2022년 마을에서 새로이 진행할 프로젝트 및 VR기반이 마을  
아카이브 작업 관련 전시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내용들을 이  
야기 나눔.  
마을 주민이신 장보영님이 수도 얼지 말라고 물을 푹푹 흐르  
게 해주심

## 베벨보관소와 함께한 사람들

강운주, 강정환, 고동연, 구오이, 권석린, 김이박, 김윤하,  
김장언, 김정운, 김하민, 김현주, 더툰 (이성순, 고현경),  
백정희, 사공미영, 송임숙, 신윤희, 영호, 오경선, 오수진,  
오수환, 오로민경, 이사야, 이선철, 이순주, 이초영, 임석현,  
임창재, 유상호, 윤지영, 윤현옥, 장영원, 전병철,  
정명국, 정강실, 정대원, 정순교, 조광희, 진은정, 최정원

강득윤, 고종주, 김광자, 김귀임, 김남선, 김성일, 김순금,  
김순자, 김순희, 김안정(가명), 김운자, 김연규, 김옥순,  
김재순, 김종성, 김춘분, 김화춘, 노갑순, 디나라, 라이언,  
Lam, 박기호, 박광길, 박경귀, 박부덕, 박복순, 박영숙,  
박영태, 박춘원, 배두리, 백승대, 서정숙, 성현자, 송영순,  
신진옥, 심복순, 안순희, 엄대용, 오경자, 오모진, 왕학검,  
왕희관, 이강수, 이갑수, 이경순, 이기년, 이승주, 이승수,  
이순자, 이순예, 이순평, 이정란, 이정원, 이정화, 이영대,  
이영자, 이월식, 이필선, 영숙, 윤순복, 이철구, 임양근,  
장용대, 장서울, 장숙자, 정남수, 정순자, 정옥향, 조춘자,  
지성현, 차숙자, 최덕주, 최영자, 최산금, 최승준, 최재규,  
최찬영, 최창선, 최희순, 테이든, 하옥섭, 한옥희, 황연옥,  
황용섭, 황재영, 황해인, 황효빈, 현교철

강정환, 강재영, 강민채, 고재은, 권윤정, 김나영, 김동희,  
김민수, 김민화, 김병호, 김순영, 김아영, 김솔지, 김선기,  
김성길, 김수빈, 김순선, 김영주, 김유리, 김유미, 김은진,  
김재원, 김정옥, 김지영, 김진희, 김현주, 김혜영, 김화원,  
김태우, 남영, 류근수, 목영대, 박경아, 방경지, 박소정,  
박이창식, 박영재, 박정서, 박성준, 박정민, 백송이, 선수림,  
성원선, 송종석, 신예린, 안두열, 안은성, 안정현, 오경순,  
오수진, 왕지연, 유정자, 윤나영, 윤수민, 윤영노, 윤진아,  
윤행신, 위성희+따님, 이성순, 이월식, 이정희, 임지예,  
이아롱, 장미화, 장유정, 장원정, 장윤지, 장미희, 장성빈,  
전용부, 정연희, 조이스, 조성국, 조은지+따님, 정철,  
정혜진, 조혜영, 진나래, 진성야, 진주화, 최윤서, 최윤선,  
최성인, 최승환, 최지호, 최시안, 최원준, 최혜영, 최희신,  
한아름, 황소연, 황승찬 외 다수



빼빼보관소 : 삶·예술을 보관하다 2021  
2021.03. - 2022.01.



기획 | 김현주, 조광희  
사진 & 영상 | 달로, 조광희, 임창재  
전시사진 | 조광희  
편집 | 달로  
디자인 | 사공미영, 달로  
프로젝트 업무지원 | 김미정, 백정희, 유상호, 이사야  
공간업무지원 | 장보영, 황재영

주최 |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주관 | 의정부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후원 | 의정부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협찬 | (주)실사랑·SPEED VINA,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문화공작소 아하,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발행일 | 2022. 02. 21.  
발행인 |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9번길 63  
출판사 |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인쇄 | 석우출력

빼빼보관소 | <https://www.facebook.com/Hyunjoodalo/>  
E.mail | dalohyunjoo@naver.com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 할 수 없습니다.